d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3190

Collection @ chosun

2006년 2월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논문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 경 종

Collection @ chosun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areer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 경 종

Collection @ chosun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선 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 경 종

Collection @ chosun

손경종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주 성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영 숙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선 형 인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표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ABSTRACT ····· i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4.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진로 교육의 이해 ····· 5
2. 진로 교육의 내용 ····· 13
3. 진로 교육과 직업 ····· 18
4. 선행 연구의 고찰 ····· 24
III. 분석 모형 및 조사 설계 ····· 26
1. 분석 모형 ····· 26
2. 조사 설계 ····· 26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28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8
2. 분석 결과 및 논의 ····· 29
V. 요약 및 결론 ····· 70
1. 요약 ····· 70
2. 결론 ····· 73
3. 제언 ····· 74
참고 문헌 ····· 75
부 록 ····· 78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1> 중학교 영역별 진로 교육 내용 ····· 15
<표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체계 ····· 21
<표 3> 선행 연구의 고찰 ····· 24
<표 4> 표집 대상별 분포 ····· 26
<표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 27
<표 6> 설문지 구성 영역 ····· 27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8
<표 8> 미래 모습에 대한 인식 ····· 29
<표 9> 진로 지도 교육 시기 ····· 31
<표 10>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 ····· 32
<표 11>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 매체 ····· 33
<표 12> 자녀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 35
<표 13> 중학생이 인식하는 최고 가치 ····· 36
<표 14> 가장 큰 고민 ····· 38
<표 15> 진학할 예정인 고등학교 계열 ····· 39
<표 16> 진학 학교의 계열 결정 이유 ····· 40
<표 17>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42
<표 18>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수준 ····· 43
<표 19>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 ····· 45
<표 20>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 ····· 46
<표 21>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 ····· 48
<표 22>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 ····· 50
<표 23>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 51
<표 24> 직업이 필요한 이유 ····· 52
<표 25> 직업생활 중 보람 있게 사는 사람 ····· 55
<표 26>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56
<표 27>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한 인식 ····· 58
<표 28>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한 인식 ····· 59
<표 29> 선생님과 진로문제 상담 경험 ····· 60
<표 30> 학교에서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교사 ····· 61
<표 31> 진로 선택 지도의 충분성 ····· 63
<표 32> 진로지도 내용에 대한 인지 ····· 64
<표 33>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65
<표 34> 바람직한 진로교육 ····· 67
<표 35> 진로 및 진학지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 ····· 68

dCollection @ chosun

그림 목차

[그림 1] 진로 교육의 지도 단계 ····· 13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 26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f the Career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ohn Kyung-jong
Advisor : Prof. Park Sun-hyeo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knowledge-based society, knowledge is not one of mere consumer goods but one of investment goods, the sources of social competitiveness. As a source of power and wealth, that has a tremendous impact on revamping social structure. The level of job and its content are reliant on it, and the structure of industry and occupational world also hinges on it. Moreover, the types of jobs are being diversified owing to that.

In the 21st century accompanied by splendid technical reform, students often make a career choice without exactly knowing what they can do and what's right up with their alley, from which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arise.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receive career education to be ready for their future, make a successful career choice and eventually find an appropriate job.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career awareness and career choi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remote areas, their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world, and career education provided by middle schools in light of school location, gender, academic school yea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ir guardians and their occupation. And it is also meant to contribute to offering more successful career education.

dCollection @ chosu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2 male students and 419 female students in a selected middle school under the umbrella of the Wando-Gun Office of Education in south Jeollanamdo province.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33-item questionnaires, and indirect investigation was made by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and x^2 test,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find out their perception of career, their career choice, their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world and how career education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investigated thought about what they would be like in the future to some extent, but they were not well aware of their own aptitude. Their parents did not know about their interests or aptitude, either, and it is required to provide a chance for them to take a standardized test to exactly figure out their own aptitude. Besides, extracurricular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to help them to check what they could do and foster their talents.

Second, the students acquired career information through their parents and families the most, and they considered it most advisable to start receiving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To let them benefit from more objective information, middle schools should have career information center to facilitate their career exploration.

Third, they were under the most influence of their parents in relation to entrance into high schools, and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were going to go up to regular high schools. This was because high school admission was just viewed as part of process to enter university,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business high schools and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Collection @ chosun

should be provided.

Fourth, a lot of the students believed that occupation was necessary to develop their aptitude and deploy their ability, and many had just an unclear idea about their future job. They should receive intensive education about work ethics to precisely understand the worth of labor and the multiple meanings of job.

Fifth, they did not find themselves to receive enough education about career choice at school, and they felt care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extracurricular class. Teachers should take sequential training courses to enhance their qualifications, and optional class should properly be operated.

Based on the above-described findings, t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of all, school and mass media should put concerted efforts into guiding the vocational awareness of students and parents in the right direction, and career education should be part of regular school education. Secondly, career education could be most successful when there are collaboration among family, school and local community. Career education programs geared toward parents should be prepared to change their way of looking at career and to help them offer career information to their children. Thirdly, every teacher should need to take training courses in career counseling to improve their consciousness of career education, and curriculum should be applied more flexibly to have students exposed to the world of work through field trip and experiential programs.

Collection @ chosu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Bell(1973)은 일찍이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가치의 중심이 되는 현대 사회를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최근에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명명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된 지식을 생산·사용·교환·확산·재구성함으로써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우리의 삶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교육부, 2000).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회 경쟁력의 원천인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식은 권력과 부의 원천으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하여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내용이 변화하며,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선택 문제이다.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며, 행복한 개인으로서 모든 인생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과 소양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올바른 진로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게 하여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게 한다.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인력 양성을 통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진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측면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들의 전 생애 과정에 따라 각 단계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 결정은 장차 대학교 진학이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맞는 중대한 선택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

Collection @ chosun

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적절한 준비를 갖춤으로써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진로 교육이 요구된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창의적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여 충분히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적성에 부합한 진로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족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친구 문제, 약물 사용 문제, 학교 중도탈락 문제 등 갖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과 기술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이 학문적이고 주지적인 측면으로만 편중됨으로서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장석민, 2001).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진로 지도란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지도 위주의 지도였을 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나 직업 준비 등에 대한 지도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과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도 모르며 일류 대학에만 진학하고자 하거나, 무조건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진로를 선택해 중도에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교사의 지도 능력 결여, 자료 미비, 지도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들의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 의식의 결여,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진로관 결여,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인문주의 숭상, 능력보다 학력에 치우친 고용 제도, 3D현상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무시한 바람직하지 못한 진로관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진로 교육 및 진로 진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중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장래 계획과 진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Collection @ chosun

2. 연구 문제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교 학생들의 직업 세계의 이해는 어떠한가?

넷째, 중학교의 진로 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Career) :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
2) 직업(Vocation) :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을 의미하며,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3) 진로 발달(Career Development) :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 목표에 접근해 가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4)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 : 개인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학교·가정·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총칭한다.
5)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 :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이해·판단력을 개발하는 형식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을 말한다.
6) 진로 상담(Career Counseling) :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진로 계획, 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7) 진로 지도(Career Guidance) :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애동안 그들의 진로 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자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이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로서 진로 계획, 의사 결정, 적응 문제 등에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Collection @ chosun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J도 W군 관내 남, 여 중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의 한정된 내용과 문항에 의하여 조사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중학교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교육의 이해

1) 진로 교육의 개념

진로(career)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식된다. 또한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 및 내용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희망도 가져보고 고뇌와 회의도 느낀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한 전망 속에 매우 걱정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직업을 생각했었고, 경제적 유무가 직업선택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직업세계를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진로 선택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에 자신의 능력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성급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로 교육이란 진학 및 직업 지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진로 개발 교육(career development education)으로서 career education이라고 부른다. 또한 진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토대로 적성·흥미·능력·인성에 알맞은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각하며, 진로의 인식·탐색·경험·준비를 통하여 일생동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알맞은 직업적성교육이다. 즉, 유목적적인 진로의 성공감을 맛볼 수 있는 실증적 교육으로 자아실현의 경지로 이끄는 전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충기, 2004).

Collection @ chosun

Bailey와 Stadt(1973)는 진로 교육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Taylor(1972)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했으며, Hoyt(1974)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청소년들이 흥미와 능력을 가지고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필요한 계획, 즉 의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교수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2) 진로 교육의 목표

진로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목표는 일생동안 일이 개인에게 가능하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목표는 개인이 일을 원하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일생동안 만족스러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 교육의 목표는 개인으로 하여금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를 가지게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현명하게 선택하게 하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게 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일의 세계에 진출 가능하도록 하며, 일에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3) 진로 발달 이론

진로 발달 이론들은 크게 진로발달의 '내용'을 강조하는 이론과 진로발달의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Herr와 Crammer(1996)는 특성-요인이론, 의사결정이론, 사회이론, 심리이론 및 발달이론 등으로 구분하는 반면, Gibson과 Mitchell(1990)은 과정이론, 발달이론, 성격이론, 기회이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러 분류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 Roe의 욕구이론, Holland의 인성이론,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Blau의 사

Collection @ chosun

회학적 이론, Super의 발달이론, Tiedeman과 O'Hara의 발달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Parsons의 특성 요인 이론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에 근거를 둔 특성 요인 이론은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다. Parsons(1909), Hull(1928) 등이 주류를 이루는 이 접근 방법의 요체는 사람과 직업을 짝지워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소지한 제특성을 심리 검사 등의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 밝혀내고, 각각의 직업이 요구하는 제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케 하는 것이다. 이때 직업 선택의 타당성에 대한 준거는 개인이 지닌 특성이 그 직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가 된다(이정근, 1992).

특성요인 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직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중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적성,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흥미, 가치관, 성격 등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개인에게 제시해 주고, 직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주로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측정도구에서 얻어진 정보의 예언타당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측정결과가 직업에서의 성공여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직업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직업선택 시에 참고로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2) Roe의 욕구 이론

Roe(1956)의 이론적 관심은 성격이론과 직업분류라는 아주 이질적인 영역을 통합하는데 있었다. 그는 직업의 전 영역을 신체적·심리적 변인이나 경험 등에서의 개인차와 관련지어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Roe는 Maslow(1954)의 욕구위계론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과 기본욕구만족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격이론 중 Maslow의 이론이 가장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였다(김봉환, 2000).

Roe는 MORS(Minnesota Occupational Rating Scales : 미네소타 직업 평가 척

Collection @ chosun

도)에서 힌트를 얻어 흥미에 대한 다양한 요인분석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흥미에 기초해서 직업을 여덟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집에 알맞은 직업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직업 활동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특성과 직업 활동 강도에 기초한 연속선상에 직업들이 배열될 수 있으며, 연속선상에서 가까이 위치한 군집들이 떨어진 군집보다 인간관계의 특성과 강도 면에서 더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각 직업에서의 곤란도와 책무성을 고려하여 여덟 개의 단계(level)를 설정하여 8×8의 분류체계를 완성했는데 두 가지 단계를 탈락시키고 결국 8×6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가 제안한 8가지 직업군은 서비스직(Service), 비즈니스직(Business Contact), 단체직(Organization), 기술직(Technology), 옥외활동직(Outdoor), 과학직(Science), 일반문화직(General Culture), 예능직(Arts and Entertainment)이다.

각 군집은 다시 책임, 능력, 기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 전문 관리(Professional and managerial 1), 중급 전문 관리((Professional and managerial 2), 준 전문 관리(Semiprofessional and Small business), 숙련직(Skilled), 반숙련직(Semi skilled), 비숙련직(Unskilled)으로 나누었다(Roe & Lunneborg, 1990).

(3) Holland의 인성이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섯 가지 인성 유형 중 하나로 범주화 될 수 있다. 그 개인이 전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환경은 인성 유형에 관련되어 범주화된다. Holland(1985)의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환경을 추구하고, 그들의 태도나 가치를 표현하도록 허용해 주는 환경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유형의 사람은 현실적인 환경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적 유형의 사람은 사회적 환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Holland의 이론의 핵심이 되는 네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이현림, 2000).

첫째,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설득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 유형의 여섯 가지 인성 유형 중 하나로 범주화된다. 머릿글자 RIASEC는 여섯 가지 유형의 이름과 순서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인성과 동일한 여섯 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다.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

Collection @ chosun

예를 들어, 사회적인 사람보다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 현실적인 환경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바람직한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환경을 추구한다. 넷째, 한 개인의 행동은 그의 인성과 환경적 특성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한 개인의 성격과 그 자신의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 선택, 직업 변화, 직업적 성취와 같은 중요한 결과를 예언할 수 있게 해준다.

Holland의 이론을 요약하면, 개인의 행동은 인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함수이며 개인의 직업선택행동은 그의 인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성 유형을 표출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Holland가 제시한 직업 행동과 적응 유형의 이론에는 다양한 직업의 영역 및 각 직업의 범주에 따르는 개인의 흥미, 가치관, 대인관계 기술, 성격 특성 등 개인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4) Krumboltz의 사회 학습 이론

Krumboltz, Mitchell, Gelatt(1975)는 처음으로, 그 후 Mitchell과 Krumboltz(1990)는 커리어 의사 결정 과정을 사회 학습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최근에 Mitchell과 Krumboltz는 커리어 상담에 관한 Krumboltz의 학습 이론을 포함시켜 초기 사회 학습 이론을 확장시켰고, 현재 그들은 이 전체 이론을 커리어 상담의 학습 이론으로 부르고 있다(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 LTCC).

이 이론은 커리어 선택의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이며 기본적으로 커리어 선택의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생애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LTCC에서 커리어 발달의 과정은 유전적 재능과 특수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등 네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김완석, 김선희, 2004).

유전적 재능과 특수 능력은 개인의 커리어 기회를 제한하는 유전적 속성을 말한다.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종종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향 요인이다. 여기서는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정 사건과 상황이 기술발달, 활동, 커리어 선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 경험은 도구적 학습경험과 연합 학습 경험을 포함하는데, 도구적 학습경험은 결과에 대한 반응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dCollection @ chosun

통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개인이 학습하는 것이다. 연합학습은 이전에 중립적인 상황들의 쌍에 긍정적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과제 접근 기술은 문제 해결 기술, 작업 습관, 마음 갖춤세, 감정적 반응, 인지적 반응 같은 개인들이 발달시키는 기술 집합을 말한다. 발달된 기술 집합들은 대개 개인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의 결과를 결정한다.

Krumboltz는 이상에서 언급된 진로결정 요인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및 '환경적 조건과 사건'을 환경적 요인이라 하였고,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을 심리적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5) Blau의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sociological theories)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즉,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의 관점을 중시하고 이를 진로발달의 개념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Blau(1956), Hollingshead(1949), Miller와 Form(1971) 등이 있다.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은 교육 정도, 직업포부 수준, 지능수준 등이 다르며 이런 요인들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 상담 시에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영향력, 학업성취도, 지역사회의 조건, 압력진단의 유형, 역할지각 등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이다(김충기, 2001).

이 이론에 따르면 문화나 인종의 차이는 개인의 직업적 야망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반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은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계층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반응, 교육수준, 직업적 야망, 일반지능 수준 등에 의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6) Super의 발달이론

Super의 이론은 Ginzberg의 직업발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된 이론으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로

dCollection @ chosun

유형 연구를 수행하면서 진로 발달 단계를 제시해 주었는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과 독특한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웅용, 2003).

① 성장기(growth stage, 0-14세)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이 시기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사회참여와 현실검증이 증가함에 따라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 환상기(fantasy substage, 4-10세):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수행이 중요시됨.

㉡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세): 개인의 취향이 활동 목표,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 능력기(capacity substage, 13-14세):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 훈련의 요구조건을 고려한다.

②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일자리 등을 통해서 자아 검증, 역할 시행, 직업적 탐색을 행하는 시기이다.

㉠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 흥미, 욕구,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상상을 통해 또는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본다.

㉡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18-21세):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직업 선택에서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며 자아 개념이 직업적 자아 개념으로의 전환을 야기하게 되는 시기이다.

㉢ 시행기(trial substage, 22-24세): 개인이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

③ 확립기(establishment substage, 25-44세)

자신에게 알맞은 분야를 발견하고,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 시행 및 안정기(trial stabilization substage, 25-30세): 자신이 선택한 일의 분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되며 영구적인 직업을 확보할 때 까지 노력을 계속하는 시기이다.

dCollection @ chosun

㉡ 승진기(31-44세): 진로 유형이 분명해짐에 따라 그 직업을 안정시키고 안정과 만족, 소속감, 지위 등을 굳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④ 유지기(maintenance stage, 45-65세)

이미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그 직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 즉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시기로 가장 안정된 생활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⑤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

개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게 되며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Super는 5단계 가운데 탐색기와 확립기의 진로발달을 중요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그가 좋아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서 안정적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uper의 이론은 지나치게 자아개념 지향적이며,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직업발달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개인의 직업 발달의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본 점과 자아개념의 직업 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진로성숙, 진로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로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7) Tiedeman과 O'Hara의 발달이론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직업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새로운 경험을 쌓을수록 개인의 정체감은 발달된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직업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개인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결정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들을 예상기(anticipation period)와 적응기(adjustment period)로 구분하고, 예상기는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로 그리고 적응기

dCollection @ chosun

는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의 하위단계로 나뉘어진다(김충기,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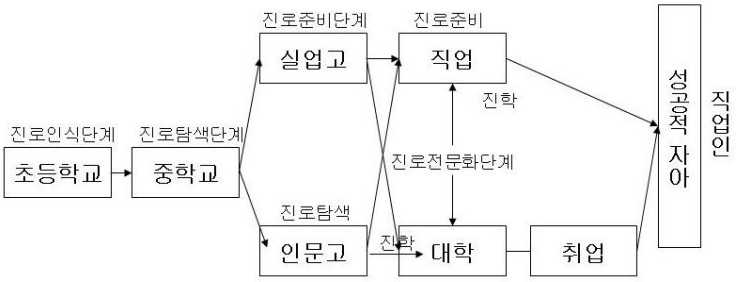
“탐색→구체화→선택→명료화→적응→개혁→통합”의 연속적 관계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거치게 된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인문계와 실업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또 실업계를 택할 경우에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등의 문제, 졸업 후의 취업문제나 직장 이동 또는 직업의 전환에 관한 문제 등이 모두가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선택되니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과업에 잘 적응해 나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것이 또한 차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하면 Tiediman과 O′Hara의 이론에서는 직업발달을 교육 또는 직업적 추구에 있어서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한 방향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 발달로 개념화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로 교육의 내용

1) 진로 교육의 지도 단계

진로 교육은 각급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제시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전문화단계로 구분하고 별도의 수업 시간을 마련하여 계획된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진로 교육 실시를 위한 지도 단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충기, 1994).



[그림 1] 진로 교육의 지도 단계

Collection @ chosun

위의 지도 단계에 의하여 실시해야 할 각급 학교별 진로 교육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충기, 1993).

첫째는 진로의식단계(career awareness)로, 이 단계는 초등학교 고학력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일의 고마움, 일의 세계, 나의 소질, 장래의 계획 등을 다루고, 일의 태도, 직업인에 대한 존경심을 기른다.

둘째는 진로탐색단계(career exploration)로, 이 단계는 중학교 교육수준의 시기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분류, 현대사회와 직업관계,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장래의 잠정적인 작업계획수립, 진학 및 직업준비, 직업의 흥미·필요성, 바람직한 직업 선정의 조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하도록 한다. 수업진행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청소년의 특징, 직업관, 직무분석 및 전망, 직업윤리교육과 잠정적인 진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직업군(occupational cluster)의 탐색이 주요 활동내용이다.

셋째는 진로 준비단계(career preparation)인데, 이 단계는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과정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군을 통하여 취업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진학과 취업준비로 갈라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진학 및 취업 정보에 익숙하도록 모든 진로 정보자료를 수집, 열람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안을 세우고 작성하도록 하며 직업 및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넷째는 진로 전문화 단계(career specification)로, 이 단계는 대학교 교육 수준의 단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직 직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의 지식과 특수기술을 준비, 개발시키는 것을 가르치고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용인으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필요한 재교육, 현직 교육과 승진을 위한 기술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보람, 직업 윤리와 가치관 정립을 확고히 하도록 한다.

학교급별에 따른 다양한 진로 교육 내용 중 중학교 진로 교육의 영역별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임두순, 1999).

Collection @ chosun

〈표 1〉 중학교 영역별 진로 교육 내용

자아 이해 영역	자아 개념의 구체화 자아의 특징의 구체화 및 발전
일 직업 이해 영역	일과 직업 세계에 관한 가치 및 이해 증진 직업의 구분 기준과 직업군의 이해 사회 경제 체제의 이해 직업 선택의 연습
의사 결정 영역	진로 계획의 책임감 강화 의사 결정의 과정 이해와 책임감 고취 잠정적인 진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자기 적성 흥미 능력과 직업과의 관련 짓기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 증진
인간 관계 영역	인간 관계의 중요성 인식 인간 관계 기술의 학습 협동과 경쟁의 사회적 행동 학습

2) 제7차 교육과정과 진로 교육 내용

제7차 교육과정은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였으며, 교과 활동,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을 통해 진로 교육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2005).

(1) 교과 시간을 통한 진로 교육

학교의 진로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의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정규 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별도의 단원 개설 등을 포함하여 어떤 식이든 기존의 교과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급별로 진로 교육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인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만 교양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편제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자인 기존 교과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각 교과 활동을 통해 관련된 일과 직업 세계를 상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교과와 관련된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곧 교과 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진로 교육의 실천이 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2) 특별 활동 시간을 통한 진로 교육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련하에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중학교에서는 왕성한 활동력과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 분야이다.

첫째, 자치활동 즉 학생회와 학급회에 진로부를 설치하고, 진로 부장을 두어 진로 탐색 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효과적인 진로 교육이 되도록 한다.

둘째, 적응 활동은 특별 활동 중 진로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상담활동, 진로 활동, 자아 정체성 확립 활동 등이 있다.

셋째, 계발 활동은 학교의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 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적응 활동과 함께 진로 교육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별 활동 영역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과 특기를 반영한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고, 가능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활동하도록 하며, 전 교사의 참여를 권장한다. 이 때 학생들에게 계발 활동의 각 영역의 특징과 활동 내용 및 장래 진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 영역이 광범위하여 학교 내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울 때는 학부모 및 지역 인사를 명예 교사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인근 학교끼리 연합계발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연합 계발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같은 일시에 전일제로 계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봉사 활동은 진로 교육과 관련하여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특별 활동분야이다. 중학교에서의 봉사 활동은 완전한 의미의 자원 활동이라기보다는 '봉사학습'의 개념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안내, 준비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며, 활동 과정에서

dCollection @ chosun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인성 교육 차원의 특성들이 더 큰 의미를 가는다.

자신이 장차 선택하려는 진로 영역과 관련된 봉사 활동의 실천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일과 삶의 가치 발견, 진로 탐색, 소질과 적성 등 자신의 이해, 의사 결정 능력 및 책임감 배양 등의 체험적인 진로 발달을 꾀할 수 있다.

다섯째, 행사 활동은 각종 의식 행사, 학예 행사, 보건체육 행사 활동을 통해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3)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한 진로 교육

중학교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나뉜다. 교과 재량 활동은 다시 국민 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총 136시간 중, 34시간을 배정하여 평균 주당 1시간 정도씩 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있음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다른 하위 영역인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활동 내용과 우리 현실과 지역 사회 실정 및 특수성을 감안한 활동, 그리고 학생의 관심과 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위주의 활동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은 학년이 높아 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한다.

이러한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진로 의식 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3. 진로 교육과 직업

1) 직업의 세계

(1) 직업의 의미

직업이란 뜻으로 vocation 또는 beruf 라는 말과 occupation 이란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vocation의 뜻에는 특별한 행동이나 생애를 위하여 인간이 신으로부터 소명되었다는 뜻과 인간이 신에 대한 봉사를 위해 불리움을 받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beruf란 말은 berufen에서 유래된 말로서 직업 직무 및 전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본래의 뜻은 천직 또는 신의 소명이라는 뜻이 있다(김충기, 1994).

직업이란 생계의 유지, 개성의 발휘 및 자아의 실현, 사회적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 또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업만큼 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적 수준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직업은 개인에게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의 개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은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의식주의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며, 이를 위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직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둘째, 직업은 소속감을 준다. 직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조직에 소속되게 하여 그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소속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직업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직업은 개인의 가치를 실현시켜 준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 명예, 권력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등의 가치 실현은 직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넷째, 직업은 개성 발휘 및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개성의 발휘와 자아 실현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의를 깨닫고 긍지를 지니며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

Collection @ chosun

를 실현한다는 것은 곧 인생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성의 발휘와 자아 실현은 주로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직업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주로 접촉하게 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 준다. 즉, 개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의 부류는 대부분 직업을 기초로 해서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주로 학생들을 접하게 되며, 의사는 주로 환자들을 접하게 된다.

여섯째, 직업은 개인의 의식 속에 내면화된다. 개인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특정한 개성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2) 직업의 변화

1995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한국직업사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직업의 종류는 모두 11,537개로, 이는 1985년 조사된 10,451개보다 약 1,000여개가 증가한 것이다. 2003년 발간된 한국직업사전 제3판은 1997년부터 2002년 까지 조사된 직업을 수록하였는데, 이전의 통합본에 수록된 직업들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었다는 비판 때문에 직업들을 많이 통합하여 약 9,400개의 직업을 수록하였다(중앙고용정보원, 2003).

이와 같이 시대 변천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과거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직업 세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 세계가 변화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술의 발달은 고도의 과학 기술과 물질 문명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자동화, 정보화, 전문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직업이 변화하게 된다.

둘째,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비중이 높아지는 분야의 관련된 직업의 종류는 늘어나고 그 수도 증가하는 반면, 비중이 낮아지는 분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는 줄어들고, 그 수도 감소하게 된다.

셋째, 정부의 경제정책의 구조가 바뀌면 그와 관련된 직업이 증가하고 새로 생겨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고, 1970년대에는 국내의 인적 자원 및 해외 자본 기술과 결합하여 중화학 공업으로의 구조 개편이 일어났으며, 1980년, 1990년대에는 서비스

dCollection @ chosun

산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더욱 커지는 경제의 서비스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 등 지식의 집중적인 활용 및 창출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 산업이 높은 부가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산업을 주도할 유망 산업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지식 기반 산업을 통한 신규 고용의 창출 및 커다란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생활 방식이나 의식의 변화도 직업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에는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김치를 만드는 직업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김치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김치 관련 직업만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김치숙성관리원, 김치제조원, 무세척원, 마늘박피기조작원, 고추제분원, 양념혼합원 등 11가지나 된다.

또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획일화보다는 개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함에 따라 생산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고, 시장 구조는 대량화, 대중화, 거대화에서 소량화, 전문화, 세분화로 바뀌고 있다. 유통의 주역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전문점으로 변화하고 있어 관련된 직업도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 가고 있다.

(3) 직업분류 체계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 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 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통계 업무는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1958년에 제정하여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ILO 국제표준 직업(ISCO-58)을 근거로 1963년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제정되었다.

1992년 4차 개정한 후 정보 통신 및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하였고,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쇠퇴하여 직업 분류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제5차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분류별 비중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사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를 세분함으로써 10개 대분류 체제에서 11개 대분류 체제로 변경되었다(통계청, 2000).

Collection @ chosun

<표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체계

0. 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1. 전문가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A. 군인
5. 판매 종사자	

(4) 직업 선택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세가지 선택은 가치관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이라고 한다. 이처럼 직업의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다. 직업이 선택되면 우리 삶의 청사진이 거의 완성된 것과 같다. 즉 내가 일할 내용, 만나야 할 사람, 살 지역, 경제적 보수, 자아 실현의 내용과 정도, 사회적 역할 등이 직업의 선택과 함께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된다.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정철영, 2001).

첫째, 나는 어떤 직업 분야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직업의 세계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직업과 연관시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누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둘째, 나는 어떤 직업 분야에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를 축적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며 청렴함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그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급기야는 부정을 저질러 인생의 파멸의 길을 걷게 될지

Collection @ chosun

도 모른다. 따라서 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진로결정요인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 능력, 흥미, 성격, 학력, 신체적 조건, 가치관 등이 있으며 사회적 요인에는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직업 세계, 사회의 직업관 등이 있다.

이 요인들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이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8가지 요인은 개인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김충기, 2004).

(1) 능력 요인

일반 지능 및 직업적성, 기계적성, 사무적성과 같은 재능은 진로의 선택과 선택한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지능과 적성은 개인진로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상관관계가 있다.

(2) 직업적 흥미

특정 직업이나 광범위한 직업 분야에 대한 흥미를 말한다. 직업적 흥미는 개인의 직업 선택, 직무 만족, 직업에의 종사 기간과 관계가 있다.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과업에 대한 흥미 또한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흥미는 찾아내는 방법에 따라 표현된 흥미(expressed interest), 행동화된 흥미(manifested interest), 검사된 흥미(inventoried interest)로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검사된 흥미와 직업과의 상관이 높다.

(3) 인성

자아개념 가치관, 욕구 대인관계, 열망수준 등의 성격적 특성을 말하며, 이러한 특성 역시 직업의 선택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열망 수준에 따라 추구하는 열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대인관계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성은 지필검사, 투사법, 면담, 상황조사, 자기보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4) 학력

학력은 개인이 받은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학업성적과 전공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즉 학력은 교육수준, 학업성적, 교과별 성적, 전공 분야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직업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가정 배경

가족구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등을 뜻한다. 어린이들은 가족과의 접촉을 통해서 최초로 사회적 경험을 갖게 되며 성장과정에서 직접·간접으로 진로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의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 직업관, 종교, 부모의 가정 교육태도, 가치관 등 모든 요소가 자녀의 직업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경제 상태

개인의 교육과 직업은 고용사회, 직업세계의 구조,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봉급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현대사회와 같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만일 직업군이나 직업의 종류 중 자기가 선택할 직업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대우가 좋아야 그쪽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다.

(7)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은 체력, 체능, 체격, 체중, 용모, 신장 등과같이 직업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을 말한다. 제아무리 지능이나 능력, 적성에 알맞은 직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결함이나 불비한 조건이 있으면 그 직업은 택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우수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면 지능·적성에 앞서 신체적으로 체격이 크다든지 체능이 남달리 우수한 타고난 체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신체 조건을 이해하도록 각별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8) 학교

학교의 성격(인문계, 실업계), 교육과정, 교우 관계, 교사의 질,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특별활동(HR, CA) 등의 요인이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Collection @ chosun

4. 선행 연구의 고찰

중학교 진로 교육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 중에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물을 <표3>과 같이 고찰하였다.

〈표 3〉 선행 연구의 고찰

구 분	제 목	연 구 결 과
안도현 (2000)	중학생의 진로 가치관과 진로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자신의 진로문제나 미래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모르고 있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이 많음. · 교사보다는 부모나 친구와 상담을 통해서 진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지도가 미흡함. · 도시 ·농촌지역 대부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며,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함.
백인숙 (2003)	중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며, 진로 선택에 있어서 소질과 적성을 중요시함. ·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며 선택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 상담을 많이 함.
정경자 (2003)	중학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분석	·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로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진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지 못함. · 진로를 결정할 때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였음. · 진학 결정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숙영 (2000)	중학생의 진로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 진로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소질,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진로 탐색과 진로 선택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로에 대한 정보는 부모나 가족, 매스컴으로부터 수집한다고 응답함. · 진로 교육은 가정, 도덕, 국어 시간에 주로 이루어졌음. · 자신의 장래를 고민한 학생일수록 체험 학습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함.
엄주윤 (2002)	중학생의 진로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신의 진로나 적성, 소질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음. · 미래에 대한 대화 상대는 친구로 나타났으며 진로 결정에 매스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 ·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원하며 대학 진학을 희망함. · 학교의 진로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직업에 귀천이 있으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직장을 옮기겠으며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에 의미를 부여한 학생은 거의 없음.

Collection @ chosun

<표 3> 선행 연구의 고찰 (계속)

구 분	제 목	연 구 결 과
윤희정 (2004)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 탐색에 관한 연구	· 진로 정보는 인터넷, 대중매체,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정규교과에 진로 교과를 포함시키기를 원함. · 인문계 고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원하는 직업과 대학진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이보영 (2000)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의 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진로지도를 위한 측정 자료를 학생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진로 결정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진로 지도에 대한 학교 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막연하게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부모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과 관련된 학원을 보낸다거나 입시를 위해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이 진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김종호 (1999)	농어촌 중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가정교육은 진로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현실적이며 진로의식 수준은 낮은 편임. ·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에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자기의 능력을 동료나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여가 활용 장소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위의 연구들은 주로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이며 진로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효과를 얻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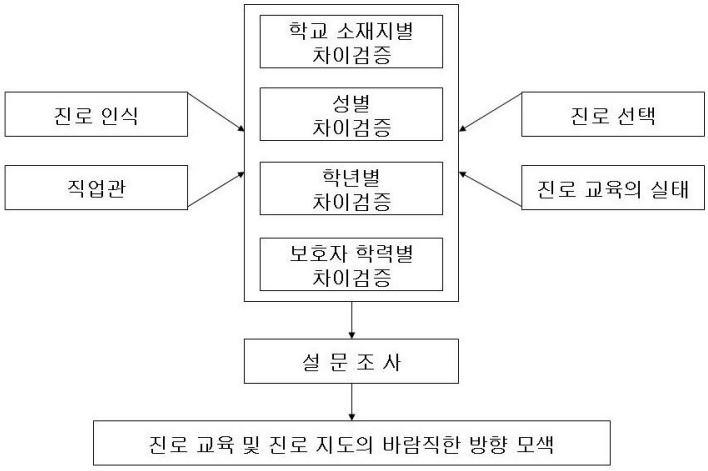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도서 벽지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진로 결정 의식, 직업세계의 이해, 중학교의 진로 교육 실태를 학교 소재지별, 남녀별, 학년별, 보호자 학력별, 보호자 직업별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또한 효과적인 진로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III. 분석 모형 및 조사 설계

1. 분석 모형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진로 선택, 직업 세계의 이해는 어떠한가를 조사 분석하고, 또한 중학교의 진로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 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2.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W군 관내 중학교에서 남학생 392명, 여학생 419명을 표집 하였는데, 표집 대상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체도지역은 읍지역으로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본 섬을 의미한다.

<표 4> 표집 대상별 분포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체도지역	남	68	60	50	178
	여	65	64	59	188
	소계	133	124	109	366
도서지역	남	73	67	74	214
	여	79	75	77	231
	소계	152	142	151	445
계		273	254	260	811

Collection @ chosun

조사 방법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해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15일 까지 15일 간 811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내용

(1) 설문지 배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부 및 분석에 사용한 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구분	배부된 설문지 수량	회수된 설문지		사용 자료		부실 자료	
		수 량	비 율(%)	수 량	비 율(%)	수 량	비 율(%)
내역	811	811	100	787	97	24	3

(2) 설문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질문지를 통한 간접 측정법을 이용했으며, 중학생의 진로 인식, 진로 선택, 직업관 및 진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도현(2000), 이보영(2000), 엄주윤(2002), 백인숙(2003), 정경자(2003)에 의해 실행된 것을 참고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6〉 설문지 구성 영역

구성역역	문항수	문항번호
개인적 사항	5	1, 2, 3, 4, 5
진로 인식	7	6, 7, 8, 9, 10, 11, 12
진로 선택	7	13, 14, 15, 16, 17, 18, 19
직업세계의 이해	7	20, 21, 22, 23, 24, 25, 26
진로교육의 실태	7	27, 28, 29, 30, 31, 32, 33
계	33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선택, 직업관, 그리고 진로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총 787명 중 학교 소재지별로는 도서지역이 55.0%로 체도지역 45.0%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2.5%로 남학생 47.5%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33.0%, 2학년 32.3%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고졸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졸 17.5%, 대졸 이상 16.8%, 초등졸 7.0%, 전문대졸 3.8% 순이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수산업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14.6%, 공무원 14.4%, 건설업 8.6%, 농업 7.5%, 서비스업 6.0%, 음식업 4.7%, 전문기술직 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45.0
	도서 지역	433	55.0
성 별	남	374	47.5
	여	413	52.5
학 년	1학년	273	34.7
	2학년	254	32.3
	3학년	260	33.0
보호자 학 력	초등졸	55	7.0
	중졸	138	17.5
	고졸	432	54.9
	전문대졸	30	3.8
	대졸 이상	132	16.8
보호자 직 업	전문기술직	34	4.3
	컴퓨터관련직	2	0.3
	언론관련직	2	0.3
	공무원	113	14.4
	군인	1	0.1
	서비스업	47	6.0
	교육관련직	13	1.7
	금융	7	0.9
	유통업	17	2.2
	예술관련직	2	0.3
	의료관련직	7	0.9

dCollection @ chosun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보호자 직 업	건설업	68	8.6
	제조업	5	0.6
	부동산업	1	0.1
	농업	59	7.5
	수산업	217	27.6
	판매관련직	13	1.7
	음식업	37	4.7
	회사생산직	4	0.5
	회사사무직	18	2.3
	회사관리직	5	0.6
	기타	115	14.6
계		787	100.0

2. 분석 결과 및 논의

1) 중학생의 진로 인식

(1) 미래 모습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22로, 중학생들은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미래 모습에 대한 인식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대도 지역	354	3.29	0.85	2.17*	0.030
	도서 지역	433	3.16	0.82		
성 별	남	374	3.10	0.83	-3.99***	0.000
	여	413	3.33	0.82		
학 년	1학년	273	3.12	0.79	5.21**	0.006
	2학년	254	3.20	0.82		
	3학년	260	3.35	0.88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3.14	0.92	2.08	0.125
	고졸	432	3.22	0.78		
	대졸 이상	162	3.32	0.85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3.48	0.84	3.74**	0.002
	공무원 및 교육직	134	3.22	0.83		
	건설, 제조업	73	3.36	0.73		
	농, 수, 상업	313	3.11	0.82		
	판매, 서비스직	77	3.40	0.80		
	기타	119	3.18	0.90		
전 체		787	3.22	0.83		

* $p<.05$, ** $p<.01$, *** $p<.001$

dCollection @ chosun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7, p<.05).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9, p<.0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21,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고,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2, p<.01).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였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여학생,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다.

(2) 진로 지도 교육 시기

진로 지도 교육 시기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진로 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기 14.6%, 초등학교 시기 14.0%, 대학교 시기 1.0%, 대학교 졸업 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도서지역 학생이 체도지역 학생보다 진로 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지도 교육은 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중학생보다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8.80, p<.01).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다 진로 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2학년 학생은 1, 2학년 학생보다 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2.50, p<.01).

dCollection @ chosun

〈표 9〉 진로 지도 교육 시기

구 분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대학교 시기	대학교 졸업 후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52 (14.7)	241 (68.1)	53 (15.0)	6 (1.7)	2 (0.6)	354 (45.0)	3.76 (4)	0.440
	도서 지역	58 (13.4)	307 (70.9)	62 (14.3)	2 (0.5)	4 (0.9)	433 (55.0)		
성별	남	48 (12.8)	250 (66.8)	62 (16.6)	8 (2.1)	6 (1.6)	374 (47.5)	18.80** (4)	0.001
	여	62 (15.0)	298 (72.2)	53 (12.8)	-	-	413 (52.5)		
학년	1학년	39 (14.3)	189 (69.2)	41 (15.0)	1 (0.4)	3 (1.1)	273 (34.7)	22.50** (8)	0.004
	2학년	28 (11.0)	168 (66.1)	51 (20.1)	6 (2.4)	1 (0.4)	254 (32.3)		
	3학년	43 (16.5)	191 (73.5)	23 (8.8)	1 (0.4)	2 (0.8)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33 (17.1)	126 (65.3)	29 (15.0)	3 (1.6)	2 (1.0)	193 (24.5)	7.64 (8)	0.469
	고졸	60 (13.9)	306 (70.8)	62 (14.4)	2 (0.5)	2 (0.5)	432 (54.9)		
	대졸 이상	17 (10.5)	116 (71.6)	24 (14.8)	3 (1.9)	2 (1.2)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3 (18.3)	45 (63.4)	12 (16.9)	1 (1.4)	-	71 (9.0)	9.56 (20)	0.976
	공무원 및 교육직	21 (15.7)	92 (68.7)	18 (13.4)	2 (1.5)	1 (0.7)	134 (17.0)		
	건설, 제조업	13 (17.8)	50 (68.5)	10 (13.7)	-	-	73 (9.3)		
	농, 수, 상업	39 (12.5)	218 (69.6)	49 (15.7)	3 (1.0)	4 (1.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8 (10.4)	57 (74.0)	10 (13.0)	1 (1.3)	1 (1.3)	77 (9.8)		
	기타	16 (13.4)	86 (72.3)	16 (13.4)	1 (0.8)	-	119 (15.1)		
계		110 (14.0)	548 (69.6)	115 (14.6)	8 (1.0)	6 (0.8)	787 (100.0)		

** $p<.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 지도 교육은 초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 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진로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과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3)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07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도서지역 학생이 체도지역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13, p<.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0〉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3.05	1.00	-0.43	0.669
	도서 지역	433	3.08	0.96		
성 별	남	374	3.07	1.00	0.21	0.837
	여	413	3.06	0.96		
학 년	1학년	273	3.14	1.00	2.53	0.081
	2학년	254	2.96	0.96		
	3학년	260	3.10	0.96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2.93	0.93	6.13**	0.002
	고졸	432	3.05	0.99		
	대졸 이상	162	3.28	0.96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2.97	0.99	0.24	0.945
	공무원 및 교육직	134	3.11	0.92		
	건설, 제조업	73	3.08	1.05		
	농, 수, 상업	313	3.08	0.97		
	판매, 서비스직	77	3.04	0.99		
	기타	119	3.04	1.01		
전 체		787	3.07	0.98		

** p<.01

dCollection @ chosun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4)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 매체

학생들이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1>와 같이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는 학생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선배 21.3%, 매스컴이나 인터넷 19.4%, 선생님 16.9%, 친척이나 친지 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 매체

구 분		선생님	부모와 가족	친척이나 친지	친구와 선배	매스컴이나 인터넷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54 (15.3)	164 (46.3)	7 (2.0)	71 (20.1)	58 (16.4)	354 (45.0)	13.03* (4)	0.011
	도서 지역	79 (18.2)	148 (34.2)	14 (3.2)	97 (22.4)	95 (21.9)	433 (55.0)		
성별	남	73 (19.5)	168 (44.9)	8 (2.1)	57 (15.2)	68 (18.2)	374 (47.5)	21.67*** (4)	0.000
	여	60 (14.5)	144 (34.9)	13 (3.1)	111 (26.9)	85 (20.6)	413 (52.5)		
학년	1학년	44 (16.1)	133 (48.7)	9 (3.3)	38 (13.9)	49 (17.9)	273 (34.7)	41.03*** (8)	0.000
	2학년	33 (13.0)	108 (42.5)	6 (2.4)	51 (20.1)	56 (22.0)	254 (32.3)		
	3학년	56 (21.5)	71 (27.3)	6 (2.3)	79 (30.4)	48 (18.5)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38 (19.7)	48 (24.9)	5 (2.6)	61 (31.6)	41 (21.2)	193 (24.5)	36.97*** (8)	0.000
	고졸	72 (16.7)	180 (41.7)	9 (2.1)	85 (19.7)	86 (19.9)	432 (54.9)		
	대졸 이상	23 (14.2)	84 (51.9)	7 (4.3)	22 (13.6)	26 (16.0)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9 (12.7)	31 (43.7)	2 (2.8)	14 (19.7)	15 (21.1)	71 (9.0)	37.61* (20)	0.010
	공무원 및 교육직	19 (14.2)	62 (46.3)	2 (1.5)	17 (12.7)	34 (25.4)	134 (17.0)		
	건설, 제조업	13 (17.8)	30 (41.1)	-	12 (16.4)	18 (24.7)	73 (9.3)		
	농, 수, 상업	58 (18.5)	106 (33.9)	15 (4.8)	80 (25.6)	54 (17.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19 (24.7)	28 (36.4)	1 (1.3)	14 (18.2)	15 (19.5)	77 (9.8)		
	기타	15 (12.6)	55 (46.2)	1 (0.8)	31 (26.1)	17 (14.3)	119 (15.1)		
계		133 (16.9)	312 (39.6)	21 (2.7)	168 (21.3)	153 (19.4)	787 (100.0)		

* $p<.05$, *** $p<.001$

Collection @ chosun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로 얻었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3.03, p<.05).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와 선배를 통해 주로 얻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1.67, p<.0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와 선배를 통해 주로 얻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1.03,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친구와 선배를 통해 주로 얻었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6.97, p<.0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고,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선생님을 통해 주로 얻었으며,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7.61, p<.05).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었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다.

(5) 자녀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부모님의 자녀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32로, 학생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54, p<.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04, p<.01).

〈표 12〉 자녀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3.36	1.05	0.99	0.324
	도서 지역	433	3.29	1.02		
성 별	남	374	3.35	1.02	0.82	0.416
	여	413	3.29	1.05		
학 년	1학년	273	3.50	0.97	6.54**	0.002
	2학년	254	3.26	1.07		
	3학년	260	3.19	1.03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3.14	1.10	6.04**	0.002
	고졸	432	3.33	1.01		
	대졸 이상	162	3.52	0.99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3.52	1.07	1.49	0.191
	공무원 및 교육직	134	3.37	1.06		
	건설, 제조업	73	3.51	0.92		
	농, 수, 상업	313	3.26	0.99		
	판매, 서비스직	77	3.27	1.07		
	기타	119	3.24	1.12		
전 체		787	3.32	1.03		

** p<.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6) 중학생이 인식하는 최고 가치

학생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돈

Collection @ chosun

을 많이 버는 사람 26.7%, 진실과 신의와 인격을 갖춘 사람 14.5%,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 7.1%, 국가와 민족의 번영 2.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0.66, p<.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고, 대졸 이상인 학생이 진실과 신의와 인격을 갖춘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3〉 중학생이 인식하는 최고 가치

구 분		자신의 행복과 건강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	국가와 민족의 번영	진실과 신의와 인격을 갖춘 사람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66 (46.9)	111 (31.4)	27 (7.6)	5 (1.4)	45 (12.7)	354 (45.0)	9.12 (4)	0.058
	도서 지역	225 (52.0)	99 (22.9)	29 (6.7)	11 (2.5)	69 (15.9)	433 (55.0)		
성별	남	179 (47.9)	103 (27.5)	27 (7.2)	10 (2.7)	55 (14.7)	374 (47.5)	2.15 (4)	0.709
	여	212 (51.3)	107 (25.9)	29 (7.0)	6 (1.5)	59 (14.3)	413 (52.5)		
학년	1학년	156 (57.1)	59 (21.6)	10 (3.7)	6 (2.2)	42 (15.4)	273 (34.7)	20.66** (8)	0.008
	2학년	128 (50.4)	67 (26.4)	22 (8.7)	4 (1.6)	33 (13.0)	254 (32.3)		
	3학년	107 (41.2)	84 (32.3)	24 (9.2)	6 (2.3)	39 (15.0)	260 (33.0)		

dCollection @ chosun

<표 13> 중학생이 인식하는 최고 가치 (계속)

구 분		자신의 행복과 건강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	국가와 민족의 번영	진실과 신의와 인격을 갖춘 사람	계	χ^2 (df)	p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96 (49.7)	50 (25.9)	9 (4.7)	6 (3.1)	32 (16.6)	193 (24.5)	12.55 (8)	0.128
	고졸	218 (50.5)	123 (28.5)	33 (7.6)	4 (0.9)	54 (12.5)	432 (54.9)		
	대졸 이상	77 (47.5)	37 (22.8)	14 (8.6)	6 (3.7)	28 (17.3)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32 (45.1)	25 (35.2)	3 (4.2)	-	11 (15.5)	71 (9.0)	31.26 (20)	0.052
	공무원 및 교육직	60 (44.8)	40 (29.9)	10 (7.5)	3 (2.2)	21 (15.7)	134 (17.0)		
	건설, 제조업	42 (57.5)	16 (21.9)	1 (1.4)	3 (4.1)	11 (15.1)	73 (9.3)		
	농, 수, 상업	162 (51.8)	69 (22.0)	28 (8.9)	6 (1.9)	48 (15.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30 (39.0)	26 (33.8)	11 (14.3)	1 (1.3)	9 (11.7)	77 (9.8)		
	기타	65 (54.6)	34 (28.6)	3 (2.5)	3 (2.5)	14 (11.8)	119 (15.1)		
계		391 (49.7)	210 (26.7)	56 (7.1)	16 (2.0)	114 (14.5)	787 (100.0)		

** $p<.01$

이상과 같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다.

(7) 가장 큰 고민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4>과 같이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는 학생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문제 35.1%, 친구문제 5.5%, 가정문제 3.4%, 용돈문제 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친구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0.73, $p<.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3.72,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dCollection @ chosun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표 14〉 가장 큰 고민

구 분		가정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친구 문제	용돈 문제	성적 문제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2 (3.4)	129 (36.4)	11 (3.1)	17 (4.8)	7 (2.0)	178 (50.3)	354 (45.0)	1.63 (5)	0.897
	도서 지역	15 (3.5)	147 (33.9)	11 (2.5)	26 (6.0)	12 (2.8)	222 (51.3)	433 (55.0)		
성별	남	13 (3.5)	118 (31.6)	12 (3.2)	18 (4.8)	18 (4.8)	195 (52.1)	374 (47.5)	20.73** (5)	0.001
	여	14 (3.4)	158 (38.3)	10 (2.4)	25 (6.1)	1 (0.2)	205 (49.6)	413 (52.5)		
학년	1학년	8 (2.9)	47 (17.2)	10 (3.7)	20 (7.3)	9 (3.3)	179 (65.6)	273 (34.7)	113.72** (10)	0.000
	2학년	6 (2.4)	77 (30.3)	7 (2.8)	14 (5.5)	8 (3.1)	142 (55.9)	254 (32.3)		
	3학년	13 (5.0)	152 (58.5)	5 (1.9)	9 (3.5)	2 (0.8)	79 (30.4)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8 (4.1)	72 (37.3)	6 (3.1)	14 (7.3)	4 (2.1)	89 (46.1)	193 (24.5)	9.62 (10)	0.474
	고졸	13 (3.0)	155 (35.9)	12 (2.8)	25 (5.8)	9 (2.1)	218 (50.5)	432 (54.9)		
	대졸 이상	6 (3.7)	49 (30.2)	4 (2.5)	4 (2.5)	6 (3.7)	93 (57.4)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4 (5.6)	29 (40.8)	2 (2.8)	-	2 (2.8)	34 (47.9)	71 (9.0)	23.14 (25)	0.569
	공무원 및 교육직	5 (3.7)	48 (35.8)	4 (3.0)	6 (4.5)	7 (5.2)	64 (47.8)	134 (17.0)		
	건설, 제조업	4 (5.5)	21 (28.8)	1 (1.4)	6 (8.2)	1 (1.4)	40 (54.8)	73 (9.3)		
	농, 수, 상업	6 (1.9)	106 (33.9)	8 (2.6)	21 (6.7)	8 (2.6)	164 (52.4)	313 (39.8)		
	판매, 서비스직	2 (2.6)	30 (39.0)	3 (3.9)	4 (5.2)	1 (1.3)	37 (48.1)	77 (9.8)		
	기타	6 (5.0)	42 (35.3)	4 (3.4)	6 (5.0)	-	61 (51.3)	119 (15.1)		
계		27 (3.4)	276 (35.1)	22 (2.8)	43 (5.5)	19 (2.4)	400 (50.8)	787 (100.0)		

** $p<.01$, *** $p<.001$

dCollection @ chosun

2) 중학생의 진로 선택

(1) 진학할 예정인 고등학교 계열

학생들이 진학할 예정인 고등학교의 계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5>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21.3%, 특수목적고 11.8%, 방송 통신고 1.1%, 산업체 부설고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진학할 예정인 고등학교 계열

구 분		인문계	실업계	특수 목적고	산업체 부설고	방송 통신고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231 (65.3)	71 (20.1)	47 (13.3)	1 (0.3)	4 (1.1)	354 (45.0)	2.31 (4)	0.679
	도서 지역	282 (65.1)	97 (22.4)	46 (10.6)	3 (0.7)	5 (1.2)	433 (55.0)		
성별	남	232 (62.0)	92 (24.6)	40 (10.7)	3 (0.8)	7 (1.9)	374 (47.5)	9.89* (4)	0.042
	여	281 (68.0)	76 (18.4)	53 (12.8)	1 (0.2)	2 (0.5)	413 (52.5)		
학년	1학년	162 (59.3)	41 (15.0)	64 (23.4)	3 (1.1)	3 (1.1)	273 (34.7)	72.97*** (8)	0.000
	2학년	179 (70.5)	49 (19.3)	22 (8.7)	-	4 (1.6)	254 (32.3)		
	3학년	172 (66.2)	78 (30.0)	7 (2.7)	1 (0.4)	2 (0.8)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16 (60.1)	62 (32.1)	10 (5.2)	-	5 (2.6)	193 (24.5)	49.19*** (8)	0.000
	고졸	278 (64.4)	94 (21.8)	53 (12.3)	4 (0.9)	3 (0.7)	432 (54.9)		
	대졸 이상	119 (73.5)	12 (7.4)	30 (18.5)	-	1 (0.6)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39 (54.9)	18 (25.4)	12 (16.9)	-	2 (2.8)	71 (9.0)	29.45 (20)	0.079
	공무원 및 교육직	101 (75.4)	16 (11.9)	16 (11.9)	-	1 (0.7)	134 (17.0)		
	건설, 제조업	42 (57.5)	21 (28.8)	8 (11.0)	1 (1.4)	1 (1.4)	73 (9.3)		
	농, 수, 상업	194 (62.0)	76 (24.3)	37 (11.8)	1 (0.3)	5 (1.6)	313 (39.8)		
	판매, 서비스직	58 (75.3)	11 (14.3)	8 (10.4)	-	-	77 (9.8)		
	기타	79 (66.4)	26 (21.8)	12 (10.1)	2 (1.7)	-	119 (15.1)		
계		513 (65.2)	168 (21.3)	93 (11.8)	4 (0.5)	9 (1.1)	787 (100.0)		

* $p<.05$, *** $p<.001$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특수 목적고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dCollection @ chosun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9.89, p<.05).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72.97,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9.19, p<.0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과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과 2학년 학생, 그리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2) 진학 학교의 계열 결정 이유

학생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6>와 같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된 학생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의견 20.8%, 적성과 흥미 19.9%, 대학진학 또는 장래직업과 연관하여 18.0%, 가정형편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진학 학교의 계열 결정 이유

구 분		학업 성적	부모 의견	가정 형편	적성과 흥미	대학진학또는장래직업과 연관하여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41 (39.8)	69 (19.5)	6 (1.7)	71 (20.1)	67 (18.9)	354 (45.0)	2.90 (4)	0.575
	도서 지역	163 (37.6)	95 (21.9)	14 (3.2)	86 (19.9)	75 (17.3)	433 (55.0)		
성별	남	135 (36.1)	77 (20.6)	12 (3.2)	76 (20.3)	74 (19.8)	374 (47.5)	3.70 (4)	0.448
	여	169 (40.9)	87 (21.1)	8 (1.9)	81 (19.6)	68 (16.5)	413 (52.5)		
학년	1학년	85 (31.1)	62 (22.7)	8 (2.9)	67 (24.5)	51 (18.7)	273 (34.7)	15.00 (8)	0.059
	2학년	101 (39.8)	55 (21.7)	5 (2.0)	50 (19.7)	43 (16.9)	254 (32.3)		
	3학년	118 (45.4)	47 (18.1)	7 (2.7)	40 (15.4)	48 (18.5)	260 (33.0)		

dCollection @ chosun

〈표 16〉 진학 학교의 계열 결정 이유 (계속)

구 분		학업 성적	부모 의견	가정 형편	적성과 흥미	대학진학또는장래직업과 연관하여	계	χ^2 (df)	p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69 (35.8)	45 (23.3)	11 (5.7)	38 (19.7)	30 (15.5)	193 (24.5)	18.10* (8)	0.021
	고졸	175 (40.5)	92 (21.3)	7 (1.6)	86 (19.9)	72 (16.7)	432 (54.9)		
	대졸 이상	60 (37.0)	27 (16.7)	2 (1.2)	33 (20.4)	40 (24.7)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24 (33.8)	7 (9.9)	2 (2.8)	25 (35.2)	13 (18.3)	71 (9.0)	34.11* (20)	0.025
	공무원 및 교육직	57 (42.5)	28 (20.9)	4 (3.0)	19 (14.2)	26 (19.4)	134 (17.0)		
	건설, 제조업	28 (38.4)	13 (17.8)	1 (1.4)	16 (21.9)	15 (20.5)	73 (9.3)		
	농, 수, 상업	122 (39.0)	67 (21.4)	9 (2.9)	67 (21.4)	48 (15.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36 (46.8)	14 (18.2)	-	8 (10.4)	19 (24.7)	77 (9.8)		
	기타	37 (31.1)	35 (29.4)	4 (3.4)	22 (18.5)	21 (17.6)	119 (15.1)		
계		304 (38.6)	164 (20.8)	20 (2.5)	157 (19.9)	142 (18.0)	787 (100.0)		

* $p<.05$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부모 의견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대학진학 또는 장래 직업과 연관하여 결정하게 되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 의견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 의견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8.01, $p<.05$).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적성과 흥미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으며,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4.11, $p<.05$).

dCollection @ chosun

이상과 같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 학력이 고졸인 학생과 보호자가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다.

(3)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이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받은 학생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 10.8%, 형제 6.5%, 선생님 4.8% 순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는 학생은 16.0%를 차지하였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구 분		부모	선생님	형제	친구나 선배	없다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228 (64.4)	18 (5.1)	21 (5.9)	31 (8.8)	56 (15.8)	354 (45.0)	3.55 (4)	0.470
	도서 지역	259 (59.8)	20 (4.6)	30 (6.9)	54 (12.5)	70 (16.2)	433 (55.0)		
성별	남	227 (60.7)	24 (6.4)	22 (5.9)	38 (10.2)	63 (16.8)	374 (47.5)	4.86 (4)	0.302
	여	260 (63.0)	14 (3.4)	29 (7.0)	47 (11.4)	63 (15.3)	413 (52.5)		
학년	1학년	179 (65.6)	15 (5.5)	11 (4.0)	24 (8.8)	44 (16.1)	273 (34.7)	11.15 (8)	0.193
	2학년	162 (63.8)	12 (4.7)	17 (6.7)	25 (9.8)	38 (15.0)	254 (32.3)		
	3학년	146 (56.2)	11 (4.2)	23 (8.8)	36 (13.8)	44 (16.9)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03 (53.4)	12 (6.2)	13 (6.7)	26 (13.5)	39 (20.2)	193 (24.5)	13.86 (8)	0.086
	고졸	282 (65.3)	16 (3.7)	23 (5.3)	46 (10.6)	65 (15.0)	432 (54.9)		
	대졸 이상	102 (63.0)	10 (6.2)	15 (9.3)	13 (8.0)	22 (13.6)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45 (63.4)	5 (7.0)	5 (7.0)	9 (12.7)	7 (9.9)	71 (9.0)	19.00 (20)	0.522
	공무원 및 교육직	89 (66.4)	5 (3.7)	10 (7.5)	10 (7.5)	20 (14.9)	134 (17.0)		
	건설, 제조업	36 (49.2)	4 (5.5)	9 (12.3)	8 (11.0)	16 (21.9)	73 (9.3)		
	농, 수, 상업	188 (60.1)	13 (4.2)	18 (5.8)	38 (12.1)	56 (17.9)	313 (39.8)		
	판매, 서비스직	47 (61.0)	6 (7.8)	4 (5.2)	8 (10.4)	12 (15.6)	77 (9.8)		
	기타	82 (68.9)	5 (4.2)	5 (4.2)	12 (10.1)	15 (12.6)	119 (15.1)		
계		487 (61.9)	38 (4.8)	51 (6.5)	85 (10.8)	126 (16.0)	787 (100.0)		

dCollection @ chosun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 부모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보호자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수준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수준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이,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12.1%, 대학원 졸업 9.9%, 그 이상의 학력 7.2%, 전문대학교 졸업 6.9%, 중학교 졸업 2.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8〉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수준

구 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학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그 이상 학력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6 (1.7)	33 (9.3)	24 (6.8)	224 (63.3)	34 (9.6)	33 (9.3)	354 (45.0)	10.66 (5)	0.059
	도서 지역	15 (3.5)	62 (14.3)	30 (6.9)	258 (59.6)	44 (10.2)	24 (5.5)	433 (55.0)		

dCollection @ chosun

〈표 18〉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수준 (계속)

구 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학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그 이상 학력	계	χ^2 (df)	p
성별	남	9 (2.4)	53 (14.2)	29 (7.8)	219 (58.6)	42 (11.2)	22 (5.9)	374 (47.5)	7.53 (5)	0.184
	여	12 (2.9)	42 (10.2)	25 (6.1)	263 (63.7)	36 (8.7)	35 (8.5)	413 (52.5)		
학년	1학년	11 (4.0)	31 (11.4)	16 (5.9)	159 (58.2)	36 (13.2)	20 (7.3)	273 (34.7)	12.98 (10)	0.225
	2학년	8 (3.1)	31 (12.2)	21 (8.3)	155 (61.0)	19 (7.5)	20 (7.9)	254 (32.3)		
	3학년	2 (0.8)	33 (12.7)	17 (6.5)	168 (64.6)	23 (8.8)	17 (6.5)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0 (5.2)	36 (18.7)	14 (7.3)	115 (59.6)	13 (6.7)	5 (2.6)	193 (24.5)	62.24*** (10)	0.000
	고졸	11 (2.5)	51 (11.8)	28 (6.5)	280 (64.8)	35 (8.1)	27 (6.3)	432 (54.9)		
	대졸 이상	-	8 (4.9)	12 (7.4)	87 (53.7)	30 (18.5)	25 (15.4)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 (1.4)	6 (8.5)	5 (7.0)	48 (67.6)	7 (9.9)	4 (5.6)	71 (9.0)	33.12 (25)	0.128
	공무원 및 교육직	1 (0.7)	13 (9.7)	10 (7.5)	82 (61.2)	15 (11.2)	13 (9.7)	134 (17.0)		
	건설, 제조업	1 (1.4)	10 (13.7)	3 (4.1)	50 (68.5)	4 (5.5)	5 (6.8)	73 (9.3)		
	농, 수, 상업	12 (3.8)	49 (15.7)	19 (6.1)	188 (60.1)	27 (8.6)	18 (5.8)	313 (39.8)		
	판매, 서비스직	1 (1.3)	3 (3.9)	3 (3.9)	52 (67.5)	9 (11.7)	9 (11.7)	77 (9.8)		
	기타	5 (4.2)	14 (11.8)	14 (11.8)	62 (52.1)	16 (13.4)	8 (6.7)	119 (15.1)		
계		21 (2.7)	95 (12.1)	54 (6.9)	482 (61.2)	78 (9.9)	57 (7.2)	787 (100.0)		

*** $p<.0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1학년 학생이 2, 3학년 학생보다 대학원을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2.24, $p<.0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Collection @ chosun

이상과 같이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 학력이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5)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많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12.3%,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11.1%, 부모가 원하므로 10.2%, 대학을 진학하는데 꼭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6.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많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9〉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

구 분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	부모가 원하므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장차 남보다 나은 결혼	대학을 진학하는데 꼭 거쳐야 할 과정	기타	계	X^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95 (55.1)	37 (10.5)	46 (13.0)	9 (2.5)	37 (10.5)	7 (2.0)	21 (5.9)	2 (0.6)	354 (45.0)	8.43 (7)	0.296
	도서 지역	241 (55.7)	43 (9.9)	41 (9.5)	8 (1.8)	60 (13.9)	3 (0.7)	32 (7.4)	5 (1.2)	433 (55.0)		
성별	남	204 (54.5)	41 (11.0)	56 (15.0)	4 (1.1)	42 (11.2)	5 (1.3)	20 (5.3)	2 (0.5)	374 (47.5)	18.13* (7)	0.011
	여	232 (56.2)	39 (9.4)	31 (7.5)	13 (3.1)	55 (13.3)	5 (1.2)	33 (8.0)	5 (1.2)	413 (52.5)		
학년	1학년	159 (58.2)	27 (9.9)	22 (8.1)	9 (3.3)	40 (14.7)	1 (0.4)	15 (5.5)	-	273 (34.7)	32.69** (14)	0.003
	2학년	149 (58.7)	31 (12.2)	26 (10.2)	4 (1.6)	25 (9.8)	2 (0.8)	16 (6.3)	1 (0.4)	254 (32.3)		
	3학년	128 (49.2)	22 (8.5)	39 (15.0)	4 (1.5)	32 (12.3)	7 (2.7)	22 (8.5)	6 (2.3)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01 (52.3)	22 (11.4)	18 (9.3)	7 (3.6)	27 (14.0)	4 (2.1)	13 (6.7)	1 (0.5)	193 (24.5)	22.60 (14)	0.067
	고졸	247 (57.2)	47 (10.9)	49 (11.3)	3 (0.7)	43 (10.0)	5 (1.2)	32 (7.6)	5 (1.2)	432 (54.9)		
	대졸 이상	88 (54.3)	11 (6.8)	20 (12.3)	7 (4.3)	27 (16.7)	1 (0.6)	7 (4.3)	1 (0.6)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34 (47.9)	6 (8.5)	9 (12.7)	1 (1.4)	12 (16.9)	3 (4.2)	6 (8.5)	-	71 (9.0)	43.99 (35)	0.142
	공무원 및 교육직	76 (56.7)	14 (10.4)	19 (14.2)	4 (3.0)	12 (9.0)	1 (0.7)	8 (6.0)	-	134 (17.0)		
	건설, 제조업	41 (56.2)	8 (11.0)	4 (5.5)	-	14 (19.2)	1 (1.4)	4 (5.5)	1 (1.4)	73 (9.3)		
	농, 수, 상업	176 (56.2)	29 (9.3)	31 (9.9)	7 (2.2)	42 (13.4)	4 (1.3)	22 (7.0)	2 (0.6)	313 (39.8)		
	판매, 서비스직	40 (51.9)	7 (9.1)	10 (13.0)	2 (2.6)	7 (9.1)	1 (1.3)	6 (7.8)	4 (5.2)	77 (9.8)		
	기타	69 (58.0)	16 (13.4)	14 (11.8)	3 (2.5)	10 (8.4)	-	7 (5.9)	-	119 (15.1)		
계		436 (55.4)	80 (10.2)	87 (11.1)	17 (2.2)	97 (12.3)	10 (1.3)	53 (6.7)	7 (0.9)	787 (100.0)		

* $p<.05$, ** $p<.01$

Collection @ chosun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8.13, p<.05).

학년별로는 1,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2.69, p<.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과 1,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다.

(6)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이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33.3%, 부모 의사에 의해 9.9%, 기타 4.8%, 다른 고등학교는 질이 떨어지니까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

구 분		대학 진학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는 질이 떨어지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친구들이 가니까	부모 의사에 의해	기타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24 (44.6)	7 (2.5)	114 (41.0)	2 (0.7)	19 (6.8)	12 (4.3)	278 (45.9)	15.90** (5)	0.007
	도서 지역	169 (51.5)	10 (3.0)	88 (26.8)	3 (0.9)	41 (12.5)	17 (5.2)	328 (54.1)		
성별	남	116 (42.6)	4 (1.5)	107 (39.3)	3 (1.1)	33 (12.1)	9 (3.3)	272 (44.9)	16.98** (5)	0.005
	여	177 (53.0)	13 (3.9)	95 (28.4)	2 (0.6)	27 (8.1)	20 (6.0)	334 (55.1)		

dCollection @ chosun

<표 20>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 (계속)

구 분		대학 진학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는 질이 떨어지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친구들이 가니까	부모 의사에 의해	기타	계	χ^2 (df)	p
학년	1학년	104 (46.0)	7 (3.1)	77 (34.1)	3 (1.3)	22 (9.7)	13 (5.8)	226 (37.3)	7.16 (10)	0.710
	2학년	103 (51.2)	6 (3.0)	68 (33.8)	-	15 (7.5)	9 (4.5)	201 (33.2)		
	3학년	86 (48.0)	4 (2.2)	57 (31.8)	2 (1.1)	23 (12.8)	7 (3.9)	179 (29.5)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59 (46.8)	4 (3.2)	41 (32.5)	-	16 (12.7)	6 (4.8)	126 (20.8)	11.42 (10)	0.326
	고졸	158 (47.7)	8 (2.4)	105 (31.7)	4 (1.2)	38 (11.5)	18 (5.4)	331 (54.6)		
	대졸 이상	76 (51.0)	5 (3.4)	56 (37.6)	1 (0.7)	6 (4.0)	5 (3.4)	149 (24.6)		
보호자 직업	사무직	29 (56.9)	1 (2.0)	13 (25.5)	1 (2.0)	6 (11.8)	1 (2.0)	51 (8.4)	17.62 (25)	0.858
	공무원 및 교육직	52 (44.4)	4 (3.4)	47 (40.2)	1 (0.9)	9 (7.7)	4 (3.4)	117 (19.3)		
	건설, 제조업	24 (48.0)	1 (2.0)	13 (26.0)	-	8 (16.0)	4 (8.0)	50 (8.3)		
	농, 수, 상업	112 (48.5)	7 (3.0)	73 (31.6)	2 (0.9)	24 (10.4)	13 (5.6)	231 (38.1)		
	판매, 서비스직	30 (45.5)	3 (4.5)	26 (39.4)	-	6 (9.1)	1 (1.5)	66 (10.9)		
	기타	46 (50.5)	1 (1.1)	30 (33.0)	1 (1.1)	7 (7.7)	6 (6.6)	91 (15.0)		
계		293 (48.3)	17 (2.8)	202 (33.3)	5 (0.8)	60 (9.9)	29 (4.8)	606 (100.0)		

** $p<.01$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5.90, $p<.0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6.98, $p<.01$).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 3학년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 의사에 의해 인문계

Collection @ chosun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으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다.

(7)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렵게 느끼는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1>와 같이 진로를 선택할 때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22.7%,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15.5%, 진로정보의 부족 8.1%, 희망 직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몰라서 6.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할 때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어렵게 느꼈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어렵게 느꼈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21〉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

구 분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희망직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몰라서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진로 정보의 부족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82 (23.2)	22 (6.2)	174 (49.2)	52 (14.7)	24 (6.8)	354 (45.0)	2.39 (4)	0.664
	도서 지역	97 (22.4)	29 (6.7)	197 (45.5)	70 (16.2)	40 (9.2)	433 (55.0)		
성별	남	89 (23.8)	22 (5.9)	183 (48.9)	46 (12.3)	34 (9.1)	374 (47.5)	6.75 (4)	0.150
	여	90 (21.8)	29 (7.0)	188 (45.5)	76 (18.4)	30 (7.3)	413 (52.5)		
학년	1학년	66 (24.2)	26 (9.5)	119 (43.6)	39 (14.3)	23 (8.4)	273 (34.7)	10.14 (8)	0.256
	2학년	57 (22.4)	16 (6.3)	123 (48.4)	40 (15.7)	18 (7.1)	254 (32.3)		
	3학년	56 (21.5)	9 (3.5)	129 (49.6)	43 (16.5)	23 (8.8)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43 (22.3)	12 (6.2)	95 (49.2)	30 (15.5)	13 (6.7)	193 (24.5)	6.33 (8)	0.610
	고졸	102 (23.6)	31 (7.2)	199 (46.1)	69 (16.0)	31 (7.2)	432 (54.9)		
	대졸 이상	34 (21.0)	8 (4.9)	77 (47.5)	23 (14.2)	20 (12.3)	162 (20.6)		

Collection @ chosun

〈표 21〉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 (계속)

구 분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희망직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몰라서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진로 정보의 부족	계	χ^2 (df)	p
보호자 직업	사무직	16 (22.5)	6 (8.5)	28 (39.4)	13 (18.3)	8 (11.3)	71 (9.0)	17.62 (20)	0.613
	공무원 및 교육직	29 (21.6)	3 (2.2)	65 (48.5)	25 (18.7)	12 (9.0)	134 (17.0)		
	건설, 제조업	18 (24.7)	3 (4.1)	39 (53.4)	11 (15.1)	2 (2.7)	73 (9.3)		
	농, 수, 상업	68 (21.7)	25 (8.0)	145 (46.3)	48 (15.3)	27 (8.6)	313 (39.8)		
	판매, 서비스직	19 (24.7)	3 (3.9)	36 (46.8)	11 (14.3)	8 (10.4)	77 (9.8)		
	기타	29 (24.4)	11 (9.2)	58 (48.7)	14 (11.8)	7 (5.9)	119 (15.1)		
계		179 (22.7)	51 (6.5)	371 (47.1)	122 (15.5)	64 (8.1)	787 (100.0)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할 때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어렵게 느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어렵게 느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렵게 느꼈고, 학년이 높을수록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서와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어렵게 느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렵게 느꼈고, 보호자가 중졸 이하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어렵게 느꼈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과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할 때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어렵게 느꼈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와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어렵게 느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가장 어렵게 느꼈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중학생의 직업세계의 이해

(1)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

미래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학생이 6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 직업에 대한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다 10.9%, 부모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7.6%,

dCollection @ chosun

별로 관심이 없다 6.4%, 생각해 본적이 없다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

구 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막연히 추측하고 있다	부모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직업에 대한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다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20 (5.6)	244 (68.9)	28 (7.9)	19 (5.4)	43 (12.1)	354 (45.0)	1.98 (4)	0.739
	도서 지역	26 (6.0)	301 (69.5)	32 (7.4)	31 (7.2)	43 (9.9)	433 (55.0)		
성별	남	29 (7.8)	245 (65.5)	36 (9.6)	33 (8.8)	31 (8.3)	374 (47.5)	21.02*** (4)	0.000
	여	17 (4.1)	300 (72.6)	24 (5.8)	17 (4.1)	55 (13.3)	413 (52.5)		
학년	1학년	14 (5.1)	188 (68.9)	24 (8.8)	18 (6.6)	29 (10.6)	273 (34.7)	3.76 (8)	0.878
	2학년	18 (7.1)	173 (68.1)	20 (7.9)	18 (7.1)	25 (9.8)	254 (32.3)		
	3학년	14 (5.4)	184 (70.8)	16 (6.2)	14 (5.4)	32 (12.3)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7 (8.8)	132 (68.4)	12 (6.2)	13 (6.7)	19 (9.8)	193 (24.5)	14.10 (8)	0.079
	고졸	25 (5.8)	302 (69.9)	38 (8.8)	27 (6.3)	40 (9.3)	432 (54.9)		
	대졸 이상	4 (2.5)	111 (68.5)	10 (6.2)	10 (6.2)	27 (16.7)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2 (2.8)	51 (71.8)	5 (7.0)	4 (5.6)	9 (12.7)	71 (9.0)	11.83 (20)	0.922
	공무원 및 교육직	10 (7.5)	87 (64.9)	11 (8.2)	8 (6.0)	18 (13.4)	134 (17.0)		
	건설, 제조업	5 (6.8)	50 (68.5)	5 (6.8)	5 (6.8)	8 (11.0)	73 (9.3)		
	농, 수, 상업	23 (7.3)	215 (68.7)	22 (7.0)	22 (7.0)	31 (9.9)	313 (39.8)		
	판매, 서비스직	3 (3.9)	59 (76.6)	7 (9.1)	2 (2.6)	6 (7.8)	77 (9.8)		
	기타	3 (2.5)	83 (69.7)	10 (8.4)	9 (7.6)	14 (11.8)	119 (15.1)		
계		46 (5.8)	545 (69.3)	60 (7.6)	50 (6.4)	86 (10.9)	787 (100.0)		

*** $p<.001$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부모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막연히 추측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1.02, $p<.001$).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1, 2학년 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

Collection @ chosun

었고, 보호자가 대졸 이상인 학생이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었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였고,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였다.

(2)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직업 귀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05로, 학생들인 직업에 귀천이 그다지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2, p<.01).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98, p<.05).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1, p<.05).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인식하였으며,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7, p<.05).

〈표 23〉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3.18	1.11	2.92**	0.004
	도서 지역	433	2.95	1.05		
성 별	남	374	2.97	1.14	-1.98*	0.048
	여	413	3.12	1.03		
학 년	1학년	273	2.96	1.01	1.83	0.161
	2학년	254	3.06	1.13		
	3학년	260	3.14	1.10		

dCollection @ chosun

〈표 23〉 직업 귀천에 대한 인식 (계속)

구 분		n	M	SD	t(F)	p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2.89	1.04	3.61*	0.027
	고졸	432	3.07	1.10		
	대졸 이상	162	3.19	1.08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3.14	1.18	2.57*	0.026
	공무원 및 교육직	134	3.13	1.22		
	건설, 제조업	73	3.15	0.88		
	농, 수, 상업	313	2.91	1.04		
	판매, 서비스직	77	3.34	1.12		
	기타	119	3.04	1.00		
전 체		787	3.05	1.08		

* $p<.05$, ** $p<.01$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직업에 귀천이 그다지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여학생,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3) 직업이 필요한 이유

학생들이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4>과 같이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30.1%, 돈을 벌기 위하여 27.6%,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4.1%,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하여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직업이 필요한 이유

구 분		돈을 벌기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적성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하여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02 (28.8)	18 (5.1)	112 (31.6)	114 (32.2)	8 (2.3)	354 (45.0)	4.91 (4)	0.297
	도서 지역	115 (26.6)	14 (3.2)	125 (28.9)	167 (38.6)	12 (2.8)	433 (55.0)		
성별	남	98 (26.2)	20 (5.3)	125 (33.4)	119 (31.8)	12 (3.2)	374 (47.5)	10.22* (4)	0.037
	여	119 (28.8)	12 (2.9)	112 (27.1)	162 (39.2)	8 (1.9)	413 (52.5)		
학년	1학년	79 (28.9)	15 (5.5)	65 (23.8)	108 (39.6)	6 (2.2)	273 (34.7)	17.50* (8)	0.025
	2학년	70 (27.6)	9 (3.5)	72 (28.3)	97 (38.2)	6 (2.4)	254 (32.3)		
	3학년	68 (26.2)	8 (3.1)	100 (38.5)	76 (29.2)	8 (3.1)	260 (33.0)		

dCollection @ chosun

〈표 24〉 직업이 필요한 이유 (계속)

구 분		돈을 벌기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적성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하여	계	χ^2 (df)	p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61 (31.6)	8 (4.1)	59 (30.6)	61 (31.6)	4 (2.1)	193 (24.5)	6.14 (8)	0.631
	고졸	111 (25.7)	17 (3.9)	138 (31.9)	154 (35.6)	12 (2.8)	432 (54.9)		
	대졸 이상	45 (27.8)	7 (4.3)	40 (24.7)	66 (40.7)	4 (2.5)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8 (25.4)	3 (4.2)	20 (28.2)	28 (39.4)	2 (2.8)	71 (9.0)	10.33 (20)	0.962
	공무원 및 교육직	39 (29.1)	7 (5.2)	40 (29.9)	46 (34.3)	2 (1.5)	134 (17.0)		
	건설, 제조업	19 (26.0)	2 (2.7)	22 (30.1)	27 (37.0)	3 (4.1)	73 (9.3)		
	농, 수, 상업	79 (25.2)	10 (3.2)	98 (31.3)	117 (37.4)	9 (2.9)	313 (39.8)		
	판매, 서비스직	26 (33.8)	5 (6.5)	23 (29.9)	23 (29.9)	-	77 (9.8)		
	기타	36 (30.3)	5 (4.2)	34 (28.6)	40 (33.6)	4 (3.4)	119 (15.1)		
계		217 (27.6)	32 (4.1)	237 (30.1)	281 (35.7)	20 (2.5)	787 (100.0)		

* $p<.05$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22, $p<.05$).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7.50, $p<.05$).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 이하인 학생이 대졸 이상인 학생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이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Collection @ chosun

이상과 같이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높을수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4) 직업생활 중 보람있게 사는 사람

직업생활 중 보람 있게 사는 사람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5>과 같이 직업생활 중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4.9%,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13.2%, 커다란 권력을 얻은 사람 3.7%,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3.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과 도서지역 학생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직업생활 중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 3학년 학생보다 직업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생활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직업생활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공무원 및 교육직과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Collection @ chosun

〈표 25〉 직업생활 중 보람 있게 사는 사람

구 분		커다란 권력을 얻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느낌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6 (4.5)	56 (15.8)	44 (12.4)	10 (2.8)	228 (64.4)	354 (45.0)	2.89 (4)	0.577
	도서 지역	13 (3.0)	61 (14.1)	60 (13.9)	18 (4.2)	281 (64.9)	433 (55.0)		
성별	남	14 (3.7)	58 (15.5)	50 (13.4)	17 (4.5)	235 (62.8)	374 (47.5)	2.54 (4)	0.637
	여	15 (3.6)	59 (14.3)	54 (13.1)	11 (2.7)	274 (66.3)	413 (52.5)		
학년	1학년	11 (4.0)	33 (12.1)	45 (16.5)	9 (3.3)	175 (64.1)	273 (34.7)	9.17 (8)	0.328
	2학년	8 (3.1)	47 (18.5)	25 (9.8)	11 (4.3)	163 (64.2)	254 (32.3)		
	3학년	10 (3.8)	37 (14.2)	34 (13.1)	8 (3.1)	171 (65.8)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0 (5.2)	30 (15.5)	32 (16.6)	5 (2.6)	116 (60.1)	193 (24.5)	6.43 (8)	0.599
	고졸	14 (3.2)	65 (15.0)	54 (12.5)	15 (3.5)	284 (65.7)	432 (54.9)		
	대졸 이상	5 (3.1)	22 (13.6)	18 (11.1)	8 (4.9)	109 (67.3)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 (1.4)	14 (19.7)	7 (9.9)	2 (2.8)	47 (66.2)	71 (9.0)	25.02 (20)	0.201
	공무원 및 교육직	10 (7.5)	17 (12.7)	13 (9.7)	2 (1.5)	92 (68.7)	134 (17.0)		
	건설, 제조업	3 (4.1)	10 (13.7)	8 (11.0)	2 (2.7)	50 (68.5)	73 (9.3)		
	농, 수, 상업	11 (3.5)	41 (13.1)	45 (14.4)	18 (5.8)	198 (63.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1 (1.3)	15 (19.5)	11 (14.3)	-	50 (64.9)	77 (9.8)		
	기타	3 (2.5)	20 (16.8)	20 (16.8)	4 (3.4)	72 (60.5)	119 (15.1)		
계		29 (3.7)	117 (14.9)	104 (13.2)	28 (3.6)	509 (64.7)	787 (100.0)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직업생활 중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6>와 같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얻는 학생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가족 24.5%, 선배, 친구 12.5%, 학교 선생님 8.5%, 친척, 친지 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부모, 가족에서 많이 얻었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8.08, p<.05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부모, 가족에서 많이 얻었고, 여학생은

dCollection @ chosun

남학생보다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3.27, p<.05).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 3학년 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고,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 가족에서 많이 얻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2.67,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가족에서 많이 얻었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6.09, p<.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고,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부모, 가족에서 많이 얻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얻었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 2학년 학생,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다.

〈표 26〉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구 분		매스컴	학교 선생님	부모, 가족	선배, 친구	친척, 친지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74 (49.2)	28 (7.9)	111 (31.4)	37 (10.5)	4 (1.1)	354 (45.0)	18.08** (4)	0.001
	도서 지역	240 (55.4)	39 (9.0)	82 (18.9)	61 (14.1)	11 (2.5)	433 (55.0)		
성별	남	189 (50.5)	32 (8.6)	111 (29.7)	37 (9.9)	5 (1.3)	374 (47.5)	13.27* (4)	0.010
	여	225 (54.5)	35 (8.5)	82 (19.9)	61 (14.8)	10 (2.4)	413 (52.5)		
학년	1학년	135 (49.5)	22 (8.1)	76 (27.8)	30 (11.0)	10 (3.7)	273 (34.7)	22.67** (8)	0.004
	2학년	140 (55.1)	15 (5.9)	70 (27.6)	28 (11.0)	1 (0.4)	254 (32.3)		
	3학년	139 (53.5)	30 (11.5)	47 (18.1)	40 (15.4)	4 (1.5)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09 (56.5)	19 (9.8)	28 (14.5)	34 (17.6)	3 (1.6)	193 (24.5)	26.09** (8)	0.001
	고졸	232 (53.7)	28 (6.5)	114 (26.4)	50 (11.6)	8 (1.9)	432 (54.9)		
	대졸 이상	73 (45.1)	20 (12.3)	51 (31.5)	14 (8.6)	4 (2.5)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34 (47.9)	6 (8.5)	21 (29.6)	10 (14.1)	-	71 (9.0)	29.44 (20)	0.079
	공무원 및 교육직	68 (50.7)	12 (9.0)	42 (31.3)	10 (7.5)	2 (1.5)	134 (17.0)		
	건설, 제조업	42 (57.5)	4 (5.5)	20 (27.4)	7 (9.6)	-	73 (9.3)		
	농, 수, 상업	171 (54.6)	29 (9.3)	57 (18.2)	46 (14.7)	10 (3.2)	313 (39.8)		
	판매, 서비스직	38 (49.4)	11 (14.3)	20 (26.0)	8 (10.4)	-	77 (9.8)		
	기타	61 (51.3)	5 (4.2)	33 (27.7)	17 (14.3)	3 (2.5)	119 (15.1)		
계		414 (52.6)	67 (8.5)	193 (24.5)	98 (12.5)	15 (1.9)	787 (100.0)		

* p<.05, ** p<.01

Collection @ chosun

(6)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한 인식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이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하겠다 23.5%,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싫다 21.7%,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15.0%,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6.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싫다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72, p<.05).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싫다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6.69, p<.05).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싫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싫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Collection @ chosun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잘 모르겠다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낮을수록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27〉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한 인식

구 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싫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하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89 (25.1)	52 (14.7)	80 (22.6)	25 (7.1)	108 (30.5)	354 (45.0)	6.61 (4)	0.158
	도서 지역	82 (18.9)	66 (15.2)	105 (24.2)	23 (5.3)	157 (36.3)	433 (55.0)		
성별	남	67 (17.9)	61 (16.3)	101 (27.0)	27 (7.2)	118 (31.6)	374 (47.5)	11.72* (4)	0.020
	여	104 (25.2)	57 (13.8)	84 (20.3)	21 (5.1)	147 (35.6)	413 (52.5)		
학년	1학년	49 (17.9)	38 (13.9)	72 (26.4)	15 (5.5)	99 (36.3)	273 (34.7)	16.69* (8)	0.034
	2학년	50 (19.7)	39 (15.4)	64 (25.2)	11 (4.3)	90 (35.4)	254 (32.3)		
	3학년	72 (27.7)	41 (15.8)	49 (18.8)	22 (8.5)	76 (29.2)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35 (18.1)	33 (17.1)	55 (28.5)	8 (4.1)	62 (32.1)	193 (24.5)	13.53 (8)	0.095
	고졸	95 (22.0)	55 (12.7)	97 (22.5)	27 (6.3)	158 (36.6)	432 (54.9)		
	대졸 이상	41 (25.3)	30 (18.5)	33 (20.4)	13 (8.0)	45 (27.8)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6 (22.5)	7 (9.9)	17 (23.9)	6 (8.5)	25 (35.2)	71 (9.0)	24.36 (20)	0.227
	공무원 및 교육직	31 (23.1)	22 (16.4)	29 (21.6)	10 (7.5)	42 (31.3)	134 (17.0)		
	건설, 제조업	14 (19.2)	9 (12.3)	25 (34.2)	2 (2.7)	23 (31.5)	73 (9.3)		
	농, 수, 상업	66 (21.1)	53 (16.9)	68 (21.7)	20 (6.4)	106 (33.9)	313 (39.8)		
	판매, 서비스직	21 (27.3)	13 (16.9)	20 (26.0)	7 (9.1)	16 (20.8)	77 (9.8)		
	기타	23 (19.3)	14 (11.8)	26 (21.8)	3 (2.5)	53 (44.5)	119 (15.1)		
계		171 (21.7)	118 (15.0)	185 (23.5)	48 (6.1)	265 (33.7)	787 (100.0)		

* $p<.05$

(7)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한 인식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38로, 학생들은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과 도서지역 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7, p<.001).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가장 동의하였고,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12, p<.01).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였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08, p<.001).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남학생과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였다.

〈표 28〉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한 인식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2.38	1.06	0.14	0.892
	도서 지역	433	2.37	1.00		
성 별	남	374	2.53	1.02	3.87***	0.000
	여	413	2.24	1.02		
학 년	1학년	273	2.49	0.99	2.38	0.094
	2학년	254	2.31	0.99		
	3학년	260	2.33	1.10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2.30	1.01	7.12**	0.001
	고졸	432	2.31	1.03		
	대졸 이상	162	2.65	1.01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2.52	1.23	6.08***	0.000
	공무원 및 교육직	134	2.73	1.12		
	건설, 제조업	73	2.53	1.06		
	농, 수, 상업	313	2.24	0.92		
	판매, 서비스직	77	2.13	1.02		
	기타	119	2.34	0.96		
전 체		787	2.38	1.03		

** p<.01, *** p<.001

Collection @ chosun

4) 중학생의 진로 교육 실태

(1) 선생님과 진로문제 상담 경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1.79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선생님과 진로문제 상담 경험

구 분		*n*	*M*	*SD*	*t*(*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1.81	0.88	0.84	0.400
	도서 지역	433	1.76	0.81		
성 별	남	374	1.83	0.87	1.38	0.169
	여	413	1.75	0.82		
학 년	1학년	273	1.62	0.76	10.24***	0.000
	2학년	254	1.80	0.90		
	3학년	260	1.95	0.86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93	1.79	0.90	2.36	0.095
	고졸	432	1.74	0.82		
	대졸 이상	162	1.91	0.84		
보호자 직업	사무직	71	1.87	0.88	0.50	0.773
	공무원 및 교육직	134	1.75	0.86		
	건설, 제조업	73	1.85	0.95		
	농, 수, 상업	313	1.78	0.83		
	판매, 서비스직	77	1.84	0.86		
	기타	119	1.72	0.80		
전 체		787	1.79	0.85		

*** $p<.001$

학교 소재지별로는 도서지역이 체도지역 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24,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고, 대졸 이상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Collection @ chosun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있었으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다.

(2) 학교에서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교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는 교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 27.6%, 특정 교과 선생님 8.5%, 교장, 교감 선생님 2.5%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할 교사가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26.8%를 차지하였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문제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7.40, p<.0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문제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3.62, p<.0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문제에 대해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고, 1학년 학생이 2, 3학년 학생보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0〉 학교에서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교사

구 분		교장교감 선생님	진로상담 전문선생님	담임 선생님	특정교과 선생님	상담할 교사가 없다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1 (3.1)	77 (21.8)	146 (41.2)	29 (8.2)	91 (25.7)	354 (45.0)	17.40** (4)	0.002
	도서 지역	9 (2.1)	140 (32.3)	126 (29.1)	38 (8.8)	120 (27.7)	433 (55.0)		
성별	남	9 (2.4)	74 (19.8)	137 (36.6)	36 (9.6)	118 (31.6)	374 (47.5)	23.62*** (4)	0.000
	여	11 (2.7)	143 (34.6)	135 (32.7)	31 (7.5)	93 (22.5)	413 (52.5)		
학년	1학년	8 (2.9)	69 (25.3)	102 (37.4)	23 (8.4)	71 (26.0)	273 (34.7)	5.20 (8)	0.736
	2학년	8 (3.1)	67 (26.4)	83 (32.7)	24 (9.4)	72 (28.3)	254 (32.3)		
	3학년	4 (1.5)	81 (31.2)	87 (33.5)	20 (7.7)	68 (26.2)	260 (33.0)		

dCollection @ chosun

〈표 30〉 학교에서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교사 (계속)

구 분		교장교감 선생님	진로상담 전문선생님	담임 선생님	특정교과 선생님	상담할 교사가 없다	계	χ^2 (df)	p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6 (3.1)	55 (28.5)	63 (32.6)	16 (8.3)	53 (27.5)	193 (24.5)	2.19 (8)	0.974
	고졸	10 (2.3)	121 (28.0)	155 (35.9)	35 (8.1)	111 (25.7)	432 (54.9)		
	대졸 이상	4 (2.5)	41 (25.3)	54 (33.3)	16 (9.9)	47 (29.0)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1 (1.4)	13 (18.3)	26 (36.6)	7 (9.9)	24 (33.8)	71 (9.0)	15.74 (20)	0.733
	공무원 및 교육직	4 (3.0)	41 (30.6)	40 (29.9)	10 (7.5)	39 (29.1)	134 (17.0)		
	건설, 제조업	1 (1.4)	23 (31.5)	31 (42.5)	6 (8.2)	12 (16.4)	73 (9.3)		
	농, 수, 상업	10 (3.2)	90 (28.8)	103 (32.9)	31 (9.9)	79 (25.2)	313 (39.8)		
	판매, 서비스직	1 (1.3)	19 (24.7)	30 (39.0)	6 (7.8)	21 (27.3)	77 (9.8)		
	기타	3 (2.5)	31 (26.1)	42 (35.3)	7 (5.9)	36 (30.3)	119 (15.1)		
계		20 (2.5)	217 (27.6)	272 (34.6)	67 (8.5)	211 (26.8)	787 (100.0)		

** p<.01, ***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문제에 대해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고,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할 교사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가장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진로문제에 대해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다.

(3) 진로 선택 지도의 충분성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의 충분성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42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

dCollection @ chosun

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82, p<.01).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중졸 이하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과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 진로 선택 지도의 충분성

구 분		n	M	SD	$t(F)$	p
학 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2.38	0.99	-1.14	0.255
	도서 지역	433	2.45	0.89		
성 별	남	374	2.52	0.93	2.82**	0.005
	여	413	2.33	0.92		
학 년	1학년	273	2.50	0.93	1.68	0.188
	2학년	254	2.35	0.97		
	3학년	260	2.40	0.89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193	2.50	0.88	1.16	0.314
	고졸	432	2.38	0.95		
	대졸 이상	162	2.42	0.94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2.31	1.02	0.98	0.428
	공무원 및 교육직	134	2.31	0.90		
	건설, 제조업	73	2.51	0.99		
	농, 수, 상업	313	2.45	0.89		
	판매, 서비스직	77	2.38	1.03		
	기타	119	2.50	0.92		
전 체		787	2.42	0.93		

** p<.01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4) 진로지도 내용에 대한 인지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74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진로지도 내용에 대한 인지

구 분		N	M	SD	t(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354	2.61	1.04	-3.19**	0.001
	도서 지역	433	2.85	0.99		
성 별	남	374	2.70	1.04	-1.06	0.292
	여	413	2.78	1.00		
학 년	1학년	273	2.73	1.03	3.06*	0.047
	2학년	254	2.64	1.07		
	3학년	260	2.86	0.95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93	2.78	0.95	0.20	0.821
	고졸	432	2.72	1.06		
	대졸 이상	162	2.75	0.98		
보호자 직 업	사무직	71	2.83	1.13	0.53	0.754
	공무원 및 교육직	134	2.71	1.06		
	건설, 제조업	73	2.66	1.02		
	농, 수, 상업	313	2.78	0.96		
	판매, 서비스직	77	2.62	1.03		
	기타	119	2.75	1.04		
전 체		787	2.74	1.02		

* $p<.05$, ** $p<.01$

학교 소재지별로는 도서지역 학생이 체도지역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9, $p<.05$).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06, $p<.05$).

Collection @ chosun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중졸 이하인 학생이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대졸 이상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3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5)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과 같이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없어서 20.2%,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19.7%, 진로 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16.1%, 고등학교 진학 준비 때문에 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구 분		진로교육에 대한관심이 부족	진로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고등학교 진학 준비 때문에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없어서	성적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34 (19.5)	34 (19.5)	15 (8.6)	31 (17.8)	60 (34.5)	174 (45.1)	4.17 (4)	0.384
	도서 지역	42 (19.8)	28 (13.2)	14 (6.6)	47 (22.2)	81 (38.2)	212 (54.9)		
성별	남	36 (21.8)	22 (13.3)	15 (9.1)	30 (18.2)	62 (37.6)	165 (42.7)	3.63 (4)	0.459
	여	40 (18.1)	40 (18.1)	14 (6.3)	48 (21.7)	79 (35.7)	221 (57.3)		
학년	1학년	27 (22.9)	17 (14.4)	6 (5.1)	22 (18.6)	46 (39.0)	118 (30.6)	14.73 (8)	0.065
	2학년	33 (24.4)	18 (13.3)	7 (5.2)	27 (20.0)	50 (37.0)	135 (35.0)		
	3학년	16 (12.0)	27 (20.3)	16 (12.0)	29 (21.8)	45 (33.8)	133 (34.5)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15 (17.0)	15 (17.0)	10 (11.4)	19 (21.6)	29 (33.0)	88 (22.8)	4.47 (8)	0.813
	고졸	46 (21.5)	34 (15.9)	15 (7.0)	41 (19.2)	78 (36.4)	214 (55.4)		
	대졸 이상	15 (17.9)	13 (15.5)	4 (4.8)	18 (21.4)	34 (40.5)	84 (21.8)		

dCollection @ chosun

〈표 33〉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계속)

구 분		진로교육에 대한관심이 부족	진로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고등학교 진학 준비 때문에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없어서	성적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계	χ^2 (df)	p
보호자 직업	사무직	7 (17.1)	7 (17.1)	4 (9.8)	12 (29.3)	11 (26.8)	41 (10.6)	16.07 (20)	0.712
	공무원 및 교육직	15 (20.3)	13 (17.6)	9 (12.2)	13 (17.6)	24 (32.4)	74 (19.2)		
	건설, 제조업	5 (17.2)	3 (10.3)	-	8 (27.6)	13 (44.8)	29 (7.5)		
	농, 수, 상업	31 (21.1)	23 (15.6)	9 (6.1)	25 (17.0)	59 (40.1)	147 (38.1)		
	판매, 서비스직	5 (12.5)	9 (22.5)	4 (10.0)	7 (17.5)	15 (37.5)	40 (10.4)		
	기타	13 (23.6)	7 (12.7)	3 (5.5)	13 (23.6)	19 (34.5)	55 (14.2)		
계		76 (19.7)	62 (16.1)	29 (7.5)	78 (20.2)	141 (36.5)	386 (100.0)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정보가 부족해서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다 진로정보가 부족해서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진로정보가 부족해서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Collection @ chosun

(6) 바람직한 진로교육

바람직한 진로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과 같이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수시로 24.1%, 진로교과 개설 지도 18.3%, 전문가 초빙 강의 16.1%, 전 교과시간 연계지도 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바람직한 진로교육

구 분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특별활동 시간에	전 교과 시간 연계 지도	전문가 초빙강의	진로교과개설 지도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105 (29.7)	112 (31.6)	28 (7.9)	60 (16.9)	49 (13.8)	354 (45.0)	15.98** (4)	0.003
	도서 지역	85 (19.6)	151 (34.9)	35 (8.1)	67 (15.5)	95 (21.9)	433 (55.0)		
성별	남	96 (25.7)	112 (29.9)	40 (10.7)	61 (16.3)	65 (17.4)	374 (47.5)	10.04* (4)	0.040
	여	94 (22.8)	151 (36.6)	23 (5.6)	66 (16.0)	79 (19.1)	413 (52.5)		
학년	1학년	67 (24.5)	107 (39.2)	19 (7.0)	33 (12.1)	47 (17.2)	273 (34.7)	11.13 (8)	0.195
	2학년	60 (23.6)	84 (33.1)	21 (8.3)	44 (17.3)	45 (17.7)	254 (32.3)		
	3학년	63 (24.2)	72 (27.7)	23 (8.8)	50 (19.2)	52 (20.0)	260 (33.0)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43 (22.3)	70 (36.3)	14 (7.3)	28 (14.5)	38 (19.7)	193 (24.5)	11.39 (8)	0.181
	고졸	108 (25.0)	140 (32.4)	39 (9.0)	79 (18.3)	66 (15.3)	432 (54.9)		
	대졸 이상	39 (24.1)	53 (32.7)	10 (6.2)	20 (12.3)	40 (24.7)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24 (33.8)	19 (26.8)	6 (8.5)	9 (12.7)	13 (18.3)	71 (9.0)	24.75 (20)	0.211
	공무원 및 교육직	33 (24.6)	35 (26.1)	17 (12.7)	23 (17.2)	26 (19.4)	134 (17.0)		
	건설, 제조업	17 (23.3)	25 (34.2)	3 (4.1)	16 (21.9)	12 (16.4)	73 (9.3)		
	농, 수, 상업	69 (22.0)	112 (35.8)	22 (7.0)	43 (13.7)	67 (21.4)	313 (39.8)		
	판매, 서비스직	22 (28.6)	29 (37.7)	6 (7.8)	14 (18.2)	6 (7.8)	77 (9.8)		
	기타	25 (21.0)	43 (36.1)	9 (7.6)	22 (18.5)	20 (16.8)	119 (15.1)		
계		190 (24.1)	263 (33.4)	63 (8.0)	127 (16.1)	144 (18.3)	787 (100.0)		

* $p<.05$, ** $p<.01$

학교 소재지별로는 체도지역 학생이 도서지역 학생보다 진로교육은 담임 선생님이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도서지역 학생은 체도지역 학생보다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5.98, $p<.0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교육은 담임 선생님이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04, $p<.05$).

Collection @ chosun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전문가 초빙강의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가 중졸 이하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대졸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진로교과 개설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진로 교육은 담임 선생님이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보호자가 농, 수, 상업에 종사하는 학생이 진로교과 개설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7) 진로 및 진학지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해 학생들의 원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과 같이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싶다 17.3%, 어떤 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를 상세히 알고 싶다 12.1%, 지망학교와 직장에 대한 견학이나 설명을 듣는다 9.1%,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진로 및 진학지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

구 분		어떤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	진로에 대한 자료	능력에 맞는 직업	지망학교와 직장에 대한 설명	기타	계	χ^2 (df)	p
학교 소재지	체도 지역	41 (11.6)	61 (17.2)	211 (59.6)	34 (9.6)	7 (2.0)	354 (45.0)	0.38 (4)	0.984
	도서 지역	54 (12.5)	75 (17.3)	256 (59.1)	38 (8.8)	10 (2.3)	433 (55.0)		
성별	남	57 (15.2)	70 (18.7)	210 (56.0)	28 (7.5)	9 (2.4)	374 (47.5)	10.36* (4)	0.035
	여	38 (9.2)	66 (16.0)	257 (62.2)	44 (10.7)	8 (1.9)	413 (52.5)		
학년	1학년	44 (16.1)	46 (16.8)	159 (58.2)	21 (7.7)	3 (1.1)	273 (34.7)	11.35 (8)	0.182
	2학년	22 (8.7)	44 (17.3)	158 (62.2)	22 (8.7)	8 (3.1)	254 (32.3)		
	3학년	29 (11.2)	46 (17.7)	150 (57.7)	29 (11.2)	6 (2.3)	260 (33.0)		

dCollection @ chosun

〈표 35〉 진로 및 진학지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 (계속)

구 분		어떤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	진로에 대한 자료	능력에 맞는 직업	지망학교와 직장에 대한 설명	기타	계	χ^2 (df)	p
보호자 학력	중졸 이하	28 (14.5)	33 (17.1)	112 (58.0)	15 (7.8)	5 (2.6)	193 (24.5)	11.71 (8)	0.165
	고졸	51 (11.8)	83 (19.2)	254 (58.8)	34 (7.9)	10 (2.3)	432 (54.9)		
	대졸 이상	16 (9.9)	20 (12.3)	101 (62.3)	23 (14.2)	2 (1.2)	162 (20.6)		
보호자 직업	사무직	4 (5.6)	16 (22.5)	42 (59.2)	9 (12.7)	-	71 (9.0)	30.59 (20)	0.061
	공무원 및 교육직	14 (10.4)	22 (16.4)	85 (63.4)	11 (8.2)	2 (1.5)	134 (17.0)		
	건설, 제조업	5 (6.8)	13 (17.8)	48 (65.8)	6 (8.2)	1 (1.4)	73 (9.3)		
	농, 수, 상업	46 (14.7)	59 (18.8)	175 (55.9)	29 (9.3)	4 (1.3)	313 (39.8)		
	판매, 서비스직	5 (6.5)	13 (16.9)	49 (63.6)	7 (9.1)	3 (3.9)	77 (9.8)		
	기타	21 (17.6)	13 (10.9)	68 (57.1)	10 (8.4)	7 (5.9)	119 (15.1)		
계		95 (12.1)	136 (17.3)	467 (59.3)	72 (9.1)	17 (2.2)	787 (100.0)		

* $p<.05$

학교 소재지별로는 별 차이 없이 능력에 맞는 진로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어떤 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를 상세히 알고 싶어하였고, 여학생은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36, $p<.05$).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 3학년 학생보다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어떤 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를 상세히 알고 싶어하였고, 2학년 학생은 1, 3학년 학생보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어떤 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를 상세히 알고 싶어하였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으나 보호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보호자가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싶어하였고,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가장 알고 싶어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다.

Collection @ chosun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진로 선택, 직업 세계의 이해, 중학교의 진로교육 실태를 학교 소재지별, 남녀별, 학년별, 보호자 학력별, 보호자 직업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효과적인 진로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J도 W군 관내 중학교를 선택하여 남학생 392명, 여학생 419명을 표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질문지를 통한 간접 측정법을 이용했으며 안도현(2000), 이보영(2000), 엄주윤(2002), 백인숙(2003), 정경자(2003)에 의해 실행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선택, 직업세계의 이해, 그리고 진로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 인식에서 학생들은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였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여학생,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였다. 진로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과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 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었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보호자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주로 얻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인

Collection @ chosun

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 선택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과 2학년 학생, 그리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된 학생이 많았으며, 보호자 학력이 고졸인 학생과 보호자가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학업성적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 학력이 고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급학교 진학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과 1,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하였다.

고등학교 진학시 대학 진학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였다.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가장 어렵게 느꼈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중학생의 직업세계의 이해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막연히 추측하였다. 학생들은 직업에 귀천이 그다지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체도지역 학생과 여학생,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dCollection @ chosun

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높을수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직업생활 중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얻었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 2학년 학생, 그리고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많이 얻었다. 학생들은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잘 모르겠다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남학생과 학년이 낮을수록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남학생과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호자가 공무원 및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 직업 종사에 대해 동의하였다.

넷째, 중학교의 진로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적이 거의 없었다. 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가장 상담하고 싶어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진로문제에 대해 진로상담 전문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3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지도를 위한 검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년, 보호자 학력,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

Collection @ chosun

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도서지역 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가장 알고 싶어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어하였다.

2.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며, 부모님도 또한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표준화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과 후 각종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었고, 진로지도 교육은 중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식하였다. 객관성있는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진로정보 자료실을 설치·운영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이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 진학을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실업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아실현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인식한 학생이 많았으며,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한다는 학생이 많았다. 이는 올바른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건전한 직업관과 교육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직업은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한 학생이 많았으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측하는 학생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진로지도 교육에 있어서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직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학

dCollection @ chosun

생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와 교사가 직업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판단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모든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주어진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흥미·지능 등의 검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으며, 진로 문제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가장 상담하고 싶어하였다. 학생의 이해와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화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연구과제와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매스컴은 학생과 학부모의 그릇된 직업의식을 계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진로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진로 교육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학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녀에게 적절한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셋째, 모든 교사에게 진로 상담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견학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참고 문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2005). **진로와 직업 교사용 지도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부(2000).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서울: 교육부.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 진로 상담**. 서울: 학지사.

김완석, 김선희(2004). **커리어 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종은(2003). **중학생의 실업계고교 인식과 진로 지도 실태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호(1999). **농어촌 중학교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기, 김희수(2003). **진로 상담의 기술**.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충기(1993).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김충기(1994).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김충기(1994). **진로 교육과 진로 지도**. 서울: 배영사.

김충기(2001).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김충기(2002). **나의 인생과 미래의 선택**. 서울: 교육과학사.

김충기(2004). **생애교육의 기초**. 경기: 한국학술정보.

김충기(2004). **직업 교육과 진로 교육**. 경기: 한국학술정보.

문 숙(2004). **중학교 기술 교과를 통한 진로 지도가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환(2001). **중학생의 상급학교 계열 선택 의식과 진로 지도의 실태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인숙(2003).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성태제(2004).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안도현(2000). **중학생의 진로 가치관과 진로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엄주윤(2002). **중학생의 진로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림(2001). **중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 실태의 분석적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희정(2004).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 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보영(2000). **중학교에서의 진로 지도의 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영(2000). **중학생의 진로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근(1992). **진로 지도와 진로 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2000). **진로 지도와 상담**.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웅용(2003). **현대 진로 상담**. 서울: 학지사.

임두순(1999). **교육 심리학과 진로 교육**. 서울: 원미사.

장석민(2001).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정경자(2003). **중학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준환(2002). **중학생들의 진로 선택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 기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철영(2001).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중앙고용정보원(2003). **직업 변동 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진동렬(1997). **중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우윤(2002).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감소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0).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서울: 행법사.

Bailey, L. & Ronald Stadt, R.(1973). *Career education: Human perspective.* Illinois: Publishing Co.

dCollection @ chosun

Gibson, R.L. & Mitchell, M.H.(1990).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d guidan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Herr, E.L. & Crammer, S.H.(1996). *Career guidance through the life span(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Holland, J.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Hoyt, K.B.(1974). *Career education: What it is and how to do(2nd ed.).* Salt Lake City, Utah: Olympus Publishing. Co.

Mitchell, L.K., & Krumboltz, J.D.(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et al.,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Roe, A. & Lunneborg, P.W.(1990). Personality development and Career Choice. In Brown, D. & Brooks, L.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Taylor, R.E.(1972). Perspectives and promise: *Career Education,* 3, 3-4.

Tiedeman, D.V., & O'hara, R.P.(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Collection @ chosun

(부 록)

진로의식 설문 조사지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진로 교육에 대한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학교 성적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진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 결과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배들의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05. 9.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경종

dCollection @ chosun

※ 이 부분은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하십시오.

1. 학교 소재지

1) 체도지역 (　　)　　2) 도서 지역(　　)

2. 성별

1) 남 (　　)　　2) 여 (　　)

3. 학년별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보호자 학력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퇴)졸(　　)

3) 고(퇴)졸(　　)　　4) 전문대학 졸업(　　)

5) 대학 졸업 이상(　　)

5.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아래 항목 중 보호자의 직업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1가지 만 선택해 주세요)

1) 전문기술직(　　)　　2) 컴퓨터관련직(　　)　　3) 언론관련직(　　)

4) 공무원(　　)　　5) 군인(　　)　　6) 서비스업(　　)

7) 교육관련직(　　)　　8) 금융(　　)　　9) 유통업(　　)

10) 예술관련직(　　)　　11) 의료관련직(　　)　　12) 법률(　　)

13) 건설업(　　)　　14) 제조업(　　)　　15) 부동산업(　　)

16) 농업(　　)　　17) 수산업(　　)　　18) 판매관련직(　　)

19) 음식업(　　)　　20) 회사 생산직(　　)　　21) 회사 사무직(　　)

22) 회사 관리직(　　)　　23) 기타(　　)

dCollection @ chosun

※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진로에 대한 인식)

6. 중학생으로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

3) 어느 정도 생각해 보았다.( ) 4) 항상 생각하고 있다( )

5)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

7. 진로 지도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 시기( ) 2) 중학교 시기( ) 3) 고등학교 시기( )

4) 대학교 시기( ) 5) 대학교 졸업 후( )

8. 여러분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 ) 2) 잘 모르고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 )

9. 진로 문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 선생님( ) 2) 부모와 가족( ) 3) 친척이나 친지( )

4) 친구와 선배( ) 5) 매스컴이나 인터넷( )

10.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의 흥미나 적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전혀 모르고 계신다.( ) 2) 잘 모르고 계신다. 3) 그저 그렇다.( )

4)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 5) 매우 잘 알고 계신다.( )

11. 여러분은 아래 항목 중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1) 자신의 행복과 건강( ) 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

3)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 ) 4) 국가와 민족의 번영( )

5) 진실과 신의와 인격을 갖춘 사람( )

12.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1) 가정 문제( ) 2) 진로 문제( ) 3) 이성 문제( )

4) 친구 문제( ) 5) 용돈 문제( ) 6) 성적 문제( )

dCollection @ chosun

(진로 선택)

13.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계통의 고등학교를 진학할 예정입니까?

1) 인문계( ) 2) 실업계( )

3) 특수목적고(과학고, 체육고, 외국어고, 예술고)( )

4) 산업체 부설고( ) 5) 방송 통신고( )

14.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계열을 결정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업성적( ) 2) 부모 의견( )

3) 가정형편( ) 4) 적성과 흥미( )

5) 대학진학 또는 장래직업과 연관하여( )

15. 자신의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부모( ) 2) 선생님( ) 3) 형제( )

4) 친구나 선배( ) 5) 없다.( )

16. 앞으로 계속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하는 데 만족하겠습니까?

1) 중학교 졸업( ) 2) 고등학교 졸업( )

3) 전문대학교 졸업( ) 4) 대학교 졸업( )

5) 대학원 졸업( ) 6) 그 이상의 학력( )

17.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

2) 부모가 원하므로( )

3)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 )

4)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학벌)( )

5) 관심있는 분야에 좀 더 많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

6) 장차 남보다 나은 결혼을 하기 위해( )

7) 대학을 진학하는 데 꼭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

8) 기타( )

18. 고등학교 진학 시 인문계(과학고, 외국어고 포함)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dCollection @ chosun

1) 대학 진학 때문에( )

2) 다른 고등학교는 질이 떨어지니까( )

3)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 4) 친구들이 가니까( )

5) 부모 의사에 의해( ) 6) 기타( )

19.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

2) 희망 직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몰라서( )

3) 능력과 성적이 부진하여( )

4) 적성이나 소질을 몰라서( )

5) 진로 정보의 부족( )

(직업세계의 이해)

20.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떻습니까?

1)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 2) 막연히 추측하고 있다.( )

3) 부모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 4) 별로 관심이 없다.( )

5) 그 직업에 대한 조사 분석이 끝난 상태이다.( )

21. 여러분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 2) 거의 없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있다.( ) 5) 매우 있다.( )

22. 직업이 사람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돈을 벌기 위하여( ) 2)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

3)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

4) 나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

5)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하여( )

23. 직업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보람있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 커다란 권력을 얻은 사람( ) 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 4)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

Collection @ chosun

5)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　　)

24.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 매스컴(TV, 신문, 인터넷)(　　)　2) 학교 선생님(　　)

3) 부모, 가족(　　)　4) 선배, 친구(　　)

5) 친척, 친지(　　)

25.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은 싫다.(　　)

2)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

3)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기꺼이 하겠다.(　　)

4)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5) 잘 모르겠다.(　　)

26.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거나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겠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그저 그렇다.(　　)　4) 동의한다.(　　)

5) 매우 동의한다.(　　)

(진로교육의 실태)

27.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 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본적이 있습니까?

1) 전혀 하지 않는다.(　　)　2) 거의 하지 않는다(　　)

3) 가끔 한다.(　　)　4) 자주 한다.(　　)

5) 항상 한다.(　　)

28. 학교에서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누구와 상담하고 싶습니까?

1) 교장 교감 선생님(　　)　2) 진로 상담 전문 선생님(　　)

3) 담임 선생님(　　)　4) 특정 교과 선생님(　　)

5) 상담할 교사가 없다(　　)

Collection @ chosun

29.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족하다.( ) 2) 부족하다.( )

3) 보통이다.( ) 4) 충분하다.( )

5) 매우 충분하다.( )

30. 자신의 적성 흥미 지능 등 진로 지도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 ) 2) 거의 모르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알고 있는 편이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 )

31. 중학교의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

2) 진로 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

3) 고등학교 진학 준비 때문에( )

4) 진로교육 전담교사가 없어서( )

5)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

32.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 2) 특별활동 시간에( )

3) 전 교과시간 연계지도( ) 4) 전문가 초빙 강의( )

5) 진로교과 개설 지도( )

33.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어떤 진로가 인생에 바람직한가를 상세히 알고 싶다.( )

2)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싶다.( )

3)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싶다( )

4) 지망학교와 직장에 대한 견학이나 설명을 듣는다.( )

5) 기타( )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